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 국가의 테러로 인해 중동지역의 크리스천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2월 28일 (토) 제 152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IS에 대한 크리스천 영적전쟁 시작!

CT, 전 미하원 볼프 주도의 인도주의적 '니네바 프로그램' 배경 보도

이슬람국가(IS) 수도에 대한 국제연합군의 지상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지구촌 크리스천들의 영적 공세가 탄력을 받고 있다. 21명의 콥틱 크리스천들이 참수형을 받은 이후 국경이나 교단을 초월한 크리스천들의 기도 릴레이와 예배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전직 미 하원의원인 프랭크 볼프(Frank Wolf)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6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해 일단 망명하거나 아직도 남아 있는 시리아, 이라크 크리스천들의 인권

보호와 아울러 신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the Nineveh Plains)을 가동시켜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주목과 지지를 받고 있다(Frank Wolf Calls for Safe Haven for Middle East Christians: Former congressman offers six-point plan, But killing continues as ISIL-linked terrorists behead 21 Christians in Libya).



IS를 반대하는 니네바 프로젝트가 크리스천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공군 조종사를 무참하게 살해당한 요르단에 이어 이집트 역시 'IS와의 전쟁'에 뛰어 들었다. 21명의 콥틱 크리스천들의 참수 동영상이 공개된 후, 이집트는 IS 주요 거점에 바로 공군 폭격을 동원해 공격을 가하는 등 중동권 전역이 반(反) IS 무드 정서가 확장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라크 군과 쿠르드족 연합군 지상군 25,000명을 통한 전면적인 지상 공격을 계획하면서 미 국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IS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직면하면서까지 시리아에서 잡힌 크리스천 일본인 기자 겐지 고토와 요르단 조종사 그리고 콥틱 크리스천들을 참수하거나 화형에 처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로 미국을 주도로 국제사회의 군사적 제재 압박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미국 주도의 제재에 참가하는 국가들 역시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선전포고한 것이다.

따라서 프랭크 볼프 전 의원은 이라크 북서부에 위치한 니네바(Nineveh)에 안전 장소(safe haven)를 마련해 크리스천들과 소수 민족들을 '대학살' 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구하자는 6단계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국회 인준을 바라는 대통령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IS의 준동을 더 이상 방관하게 되면 언제든 테러를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은 이제 중동 지역을 넘어 미국 본토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공격을 포함한 조직적인 군사작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볼프 전 의원 역시 IS 준동 지역

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절멸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전제하면서, "조대교회 이후로 존재하고 있는 오래된 크리스천 공동체들의 생존을, 인종학살 같은 엄청난 위협에, 보장할 수 없다"고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니네바 프로젝트' 추진에 미 의회의 힘을 실어준 것을 요청했다.

볼프 전 의원은 버지니아 주하원의원으로 최근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도주의적 단체(the 21st Century Wilberforce Initiative)의 공동 창립자인 동시에 베일러 대학의 종교적자유 의장으로 선임됐다.

'21세기 윌버포스'를 이끌고 있는 볼프

전 의원과 관계자들은 지난 1월 이라크 북서부 지역을 직접 방문해 망명자들-이라크 크리스천들과 야지드족-을 만나 격려했고, 해당 지역의 쿠르드족 고위 공직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인도주의적 단체들과 협의해 다음과 같은 6단계 과정을 바로 공개했다:

1. 이라크 니네바 평원에 크리스천들과 다른 소수 민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든다.
2. 니네바 쉼터를 방어하기 위한 군대를 배치한다(이미 배치 끝냄).
3. 니네바 지역에서의 크리스천 단체들이나 인도주의적 단체들의 구호, 개발 사업을 허용한다.

(3면으로 계속)

70세 꽃집 할머니가 No. 1 공공의 적?

팍스뉴스, 신앙 양심상 동성커플 요구 거절한 슈츠만 할머니 보도

"성적 취향"에 따라 동성을 선택하는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미 헌법의 평등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 해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물꼬가 열렸다. 그러나 '동성에 권리보호나, 종교적 자유냐' 논란으로 미전역에서 줄소송이 펼쳐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결혼을 인정하는 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애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고 있다.

바로셀 슈츠만(B Stutzman)은 워싱턴 주에 있는 알렌화원가게 주인이다. 지난 3월 1일 한 남자가 가게에 와서는 자신의 동성결혼 결혼식에 사용할 것이라며 꽃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와 관계' 때문에 즉, 신앙의 양심상 그에게 꽃을 팔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주 검찰은 지난 4월 바로셀이 고객을 성적 성향을 근거로 차별했다며 법원에 고소했다. 주 검찰은 "이성 결혼커플의 결혼식에 꽃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라면 동성결혼 커플의 결혼식에도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복음주의 단체들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반격이 이제는 월드(World) 지나 팍스(Fox) 방송 등 대표적인 보수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의 지원을 받아 점점 더 열기를 띄고 있다(Why does the government consider this grandmother public enemy No. 1?).

슈츠만 할머니(70세·사진)는 독실한 남침례교 교인으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 하나로 비즈니스에도 그리고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워싱턴 주 재판부는 동성커플의 결혼식 화환 준비를 거절한 슈츠만 할머니에게, 소비자 보호법과 반-혐오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미 수정헌법에 1조항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다른 행동, 즉 동성커플의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70세 할머니를 주 헌법을 위반한 "공공의 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슈츠만 할머니는 그래도 이 웃으로 알고 지냈던 동성연애 손님에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른 꽃집을 소개했다. 그러자 동성연애 손님은 워싱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바로 손해 받은 비용 즉 7달러91센트, 소개해준 꽃집에 가는 자동차 연료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슈츠만 할머니가 담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주 당국이 부과한 2천 달러의 벌금과 이번 소송에 따른 재판 소송 비용으로,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녀가 담당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할 전망이다(100만 달러 이상)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죽을 자유 달라" ... "조력자 살" 유행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16면 인/터/뷰/ All In One Guitars 김진수 대표



16면 지속적인 성장위해 실수를 없애라!

국제 22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주강사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강사 강명옥 전도사, 박주성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5년 5월 4일(월) - 5월 9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상 현 이민 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담임목사 참가시 부교역자도 참석 가능)

정원 160명

등록서류 신청서, 후보, 사진 1매

등록마감 1차: ~2015년 3월 30일(월)

2차: ~2015년 4월 15일(수)

등록비 \$420(숙식 및 교재 포함)

(1차 등록시 \$30 할인)

등록처 국제제자훈련원(T.714 635 3000)

제 15기 제자훈련 체험학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제자훈련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제자훈련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돕는 Workshop입니다.

강사 박주성 목사, 최순성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5년 5월 11일(월) - 5월 14일(목)

대상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수료자

등록비 \$250

등록 마감 2015년 3월 30일(월)



시론

개신교회가 새로워지는 길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5점 만점에 2.55점. 이것은 2008년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받은 신뢰도 점수다. 어찌 보면 억울한 마음도 들고 나름 열심히 세상을 섬기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한다. 지난 주 "다시, 프로테스탄트"(복있는 사람, 양희송 저)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데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가 밝힌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제기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였다.

첫 번째 로고스(logos)는 자기모순이나 오류, 왜곡이 없어야 하고 새로운 지식에 비추어 늘 갱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 이는 '거룩한 독서'라고 부르며 영적 훈련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 말은 말씀 아래 무릎을 꿇고 삶을 가리킨다. 말씀을 신뢰하고 그 권위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일부가 된 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순선 박사가 주장한 대로 모든 것을 말씀의 잣대로 사고하는 '계시의존사색'이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 '한가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래서 설교자들부터 밀친한 영성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성도들은 일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알뜰한 영성을 가지고도 잘 믿는 줄 착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명제로 여기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 파토스(pathos)는 열정 혹은 공감이란 뜻이다. 자신과 주변을 포함한 세상의 어떤 측면을 놓고 분노하거나 폐부를 찌르는 공감대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타락해가는 것에 분노하여 장으로 두 남자를 꿰었던 비느하스의 열정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중세 카톨릭의 타락에 대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치를 들고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당시의 부정 부패상에 대항한 것과 같은 것이다. 잘못된 가치를 향해 제대로 맞서 싸우는 능력, 그래서 자기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바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파토스다. 지금 정세 혹은 쇠퇴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필요한 것은 폐배주의를 극복하고 부흥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지녔던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목회자들부터 헝그리 정신을 회복하여 부르짖는 영성을 되찾고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우리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들고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나아갔던 이전 세대의 열정이다. 필요하다면 세상을 역행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세 번째 에토스(ethos)는 기본적으로 인격성, 신뢰성, 혹은 윤리를 의미한다. 에토스는 일상에서 쌓아올린 신용이라 할 수 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충실하게 살며 마땅히 필요한 자기의 생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삶에서 개신교인들의 윤리적 우위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1세기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도 존경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라"라고 말하곤 하였다. 기독교인들의 겸손, 사랑, 성실, 신용을 본받자는 말들이 도처에서 울려 퍼졌다. 기독교인들은 타락한 로마제국의 사람들 사이에서 경건한 삶에 있어서 균열과 같았다. 로마인들은 비록 겉으로 핍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신뢰하고 존경하였다. 그래서 로마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는 면도 있다. 교회의 각종 결정들과 행태들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각종 분열과 부패로 인해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주는 치욕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너그러워 덕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함을 속상해야 한다. 우리 세대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고자 한다면 다음 세대에 많은 열매를 맺어 이전 세대에 경험했던 부흥을 다시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죽을 자유 달라” ... “조력 자살” 유행

뉴스위크, 네덜란드 중심 급속 확산되는 유럽 안락사 문제 집중 해부

빌렘센의 남편은 2004년 사망했다. 암이 아니라 심장 문제 때문이었다. 남편은 오래 고통 받지 않아 '행운아'라고 빌렘센은 말했다. 두 번째 장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그의 심장이 멈췄다. 의사에게 남편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설득하기 위해 존엄사 위임장을 보여줬다고 빌렘센은 들려줬다. "의사들은 '일단 남편을 살려 놓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남편도 빌렘센도 원하지 않은 일이었다.

빌렘센이 원하는 것 앞에서 말한 상황이 닥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는 안락사다. 조력 자살(Doctor-Assisted Suicide)이라는 이야기다. 그런 안락사가 현재 네덜란드에선 널리 행해지고 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네덜란드인 4,829명이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끝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네덜란드인 사망 28건 당 1건 꼴이며, 2002년보다 세 배 증가했다(Dying Dutch: Euthanasia Spreads Across Europe).

을 받고 8년6개월간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83세의 나이로 2011년 6월 3일 사망했다).

그동안 미국 사회는 안락사 시술행위를 놓고 팽팽한 찬반논쟁을 벌였지만 이제는 미국인이 생각을 고쳐먹고 있다. 조력 자살은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 주에서 합법이며, 뉴멕시코와 몬태나 주에선 의사가 환자의 생명활동을 중단시키는 약을 처방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 뇌암 말기 환자인 29세 브리타니 메이너드는 합법적으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오리건 주로 이사했다. 신혼인 그녀는 신문 기고문과 TV 출연을 통해 자신의 안락사 선택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용감하다는 칭찬과 비겁하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지난해 11월 1일 메이너드가 사망한 이래 6개 주에서 의원들이 '죽을 권리' 법을 발의했다. 다른 8개 주에서도 의원들이 그와 비슷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해 5월 실시된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고통 없는 수단을 통해 환자의 생명활동을 합법적으로 끝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미국인의 비율이 70%에

네덜란드는 환자가 조력 자살을 선택하기 위해 말기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사 두 명만 설득할 수 있다면 안락사가 가능하다. 게다가 '견딜 수 없는' 범위의 정도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제 네덜란드인은 투게릭병, 다발성경화증, 우울증, 외로움에 시달리며 지내는데 지쳤다고 느끼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삶에 지쳤다고 해도 죽음을 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네덜란드에서도 불법이다. 안락사에 도움을 준 사람은 4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이래 네덜란드 정부는 조력 자살을 대마초 사용자와 거의 똑같이 다루기 시작했다. 네



조력자살에 쓰이는 약물

사망 28건 당 안락사 1건...합법국가로 '자살관광'도 안락사 500건 중 10%는 '외로움' 탓...제어불능상태

네덜란드인이란 죽을 권리를 가져야 마땅하다는 대중의 지배적인 견해를 존중해 그냥 묵인하기로 한 것이다. 2002년부터는 정해진 기준에 부합한다면 안락사를 공식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른 나라들도 네덜란드의 모델에 서서히 다가가는 중이다. 지난 2월 6일 캐나다 대법원은 "안락사를 위법으로 규정된 현행법은 캐나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대법관 9명 전원일치로 '안락사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의회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감안해 1년 후부터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캐나다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와 함께 안락사가 완전히 합법인 서방 국가가 됐다. 스위스는 일찌감치 1942년부터

'조력 자살'을 허용했다. 환자가 생명 활동을 중지시키는 약을 투여하는 데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다. 다시 말해 그 약을 자신의 의지로 삼킨다는 의미다. 그 법은 환자가 스위스 국적이 아닐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환자들이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환자의 고통 없는 영구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영국의 경우 현재 의원들이 안락사를 최초로 합법화하는 '조력 사망법'을 검토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에서 안락사 법의 확대를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단체 '죽을 권리(Right to Die)-네덜란드'의 홍보 책임자 피오네 존네벨트는 "10년이나 15년 안에 많은 서유럽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안락사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에선 '조력 자살'이 오랫동안 금지였다. 대부분은 '죽음의 의사(Dr. Death)' 책 케보키언의 영향 때문이었다. 미시간주 의사였던 그는 안락사 운동가로 최소한 130명의 자살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2급 살인죄로 유죄판결

을 받았다. 그 비율은 1950년 36%에서 점차 늘어나 1996년 이후 65-75% 사이를 오르내렸다.

안락사 지지자가 늘어나는 것은 요즘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나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2015년 봄학기 박사과정 특강안내

- ▶ 3월 특강 (March 16-20, 2015)
CL 810 Global Strategic Leadership
Dr. Youngsoo Park
- ▶ 4월 특강 (April 20-24, 2015)
CC 843 Current Issue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Dr. Jong Cheon Lee
- ▶ 6월 특강 (June 9-11, 2015)
CM 827 Church Music and Literature
Dr. Dae Gweon Kim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Arts in Business Administration
Bachelor of Arts in Music
Bachelor of Arts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Arts in Counseling
Master of Arts in Education
Master of Arts in Music
Master of Art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미국인 70% 안락사 지지... 3개주 조력자살 합법

(2면에서 계속)

종교지도자, 윤리학자, 장애인 지지자들은 그런 현상을 크게 우려한다. 그들은 의사를 통한 조력 자살이 고통은 줄여주겠지만 그 때문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위협받는다 생각하고 있다. 이미 큰 어려움에 처한 고령자와 장애인이다.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의 윤리학 교수 테오 보어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자살을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연대, 인내, 최선의 노력 같은 다른 소중한 가치가 거기에 가려진 느낌이다.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낼 방법을 찾는 것이지 아니라는 것이다. 자살은 자살성의 종말이다.”

한편 네덜란드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요즘 수백 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단체인 바로 ‘죽음 권리-네덜란드’라는 단체로 이곳에서는 회원의 존엄사 유언과 존엄사 위임장 작성도 돕는다.

이 단체의 회원수는 2010년 12만 명에서 지금 16만 명으로 늘었다. 신규 회원 가입자가 매일 평균 30-50명이나 된다. 회원은 연회비 17유로(약 2만1000원)를 내고 생을 마감하는 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서류 작성에 도움을 얻는다. 지난해는 잉여 수입으로 아동 진료소도 개설했다. 의사-간호사로 이뤄진 23개 팀이 안락사를 위해 회원 자택을 방문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한다.

보어 교수는 안락사 증가에는 선전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기자 게르베르트 반뢰넨이 지난 10년 동안 안락사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여러 편을 조사했다. “그 다큐멘터리는 특정 문제를 제



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문은 완전히 무시했다”고 보어 교수가 말했다. “그래서 일반인은 안락사가 아주 좋고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세뇌 당하는 셈이다. 그런데 전문성이 강하다.”

다른 요인도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안락사 허용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갈수록 쉬워진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대다수가 말기질병 환자였다. 지금은 사람들이 우울증, 자폐증, 시력상실, 또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처지까지도 견뎌내고 싶지 않다면 의사가 그들의 죽음을 도와줄 수 있다. “이중 안락사가 늘어난다”고 보어 교수가 말했다.

“배우자 한 명이 말기환자이고 다른 한 명이 배우자의 보살핌에 의존하는 경

우 그들은 혼자 살아남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가 검토한 안락사 500건에서 10%는 ‘외로움’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고 보어 교수는 말했다. “우리가 갈수록 우려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통계 수치가 보어 교수의 말을 뒷받침한다. 우울증에서 정신분열증까지 다양한 정신질환을 견딜 수 없다고 의사를 설득해 안락사를 받은 네덜란드인 환자가 2012년엔 13명, 2013년에는 44명으로 증가했다. 안락사를 택한 치매 환자로 2012년 43명에서 2013년 97명으로 늘었다. 보어 교수는 “두렵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상황이 제어 불능 상태에 빠졌다.”

IS에 대한 크리스천 영적전쟁 시작!

(1면에서 계속)

4. IS가 점령한 지역의 수도원, 교회들과 같은 자산 반환을 요구한다. 5. 쿠르드 지역 당국에게 요르단 그룹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게 한다. 6. 인간의 존엄성을 해쳤거나 전쟁을 일으킨 테러리스트들을 국제재판에 회부시킨다.

동 단체의 회장이자 전 목회자였던 랜달 에버레트는 “10년 전만 해도 이라크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150만 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30만 명이 살아남아 변변한 직장이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장소 없이 지내고

있다”면서, 지구촌 모든 크리스천들의 관심과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니네바 프로젝트’는 단지 크리스천에게만 허용되는 해방구가 아니다. 작년 이라크 모술을 IS가 점령한 이후 고향을 잃어 오갈 데가 없는 야지드족, 사박족 그리고 다른 소수 민족들까지 포함한다.

올해 74세의 볼프 전 버지니아 주하원의원은 34년 의정활동 역시 국제사회에 종교적 자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미 하원의 “양심”이자 미국내 국제정치에 있어 종교적 자유를

고양시키는 기수로 불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다. 결국 베일러 대학에서 그를 ‘종교적 자유’ 의장으로 선임시킨 것도 바로 볼프 전 의원의 한결 같은 의정생활에 대한 보너스인 셈이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종교적 자유 범람’ 제정을 주도해 오늘날 국무부 안에 국제종교자유감시단체(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설치하게 했고, 국무부에서 국제종교자유에 대한 특별 어드바이저로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며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박해나 고문 받는 사람들의 친구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70세 꽃집 할머니가 No. 1 공공의 적?

(1면에서 계속)

슈츠만 할머니를 대리하는 크리스틴 와고너(Alliance Defending Freedom)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워싱턴 주 검사(Bob Ferguson)를 ‘권력 남용’으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퍼거슨 검사는 주 정부의 정책을 찬동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식의 무언의 압박을 행

사했고, 동성커플의 요구 숫자에 따라 2천 달러 벌금이 가중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검찰의 결정에 굴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슈츠만 할머니는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아무리 수 검찰이나 재판부가 무형의 압박을 행사해도 자신을 지켜보며 중보기도

를 해주고 있는 23명의 손주들에게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미전역의 크리스천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만약 동성애자들이 당신의 사업장이나 가게에 와서 결혼에 대한 준비나 예식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묻고 있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19편 : 생각이여 이때도 문제 대신에 주님을 누리라

시편 119편의 이 본문 말씀은 참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 성도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해하려고 근거 없는 말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78절에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85절에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설교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역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을 생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그 뜻은, 상대방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인생을 불행하게 하려 하지만 나의 생각이 그 말에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자로 자신을 그대로 두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물 위를 걷어가는 것이고 베드로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주의 백성들이 사망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버립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즐거울 수 없을 뿐더러 더 화가 일어납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게 하려고 시간을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음을 가질 줄 알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숙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일과 못한 일, 대인관계 속의 이런 저런 일들이 다 섞여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이나 기분대로 생각을 하는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자기 자신의 영광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든든해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된 것을 생각하면 복되게 살고, 행복한 것을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고, 즐거움을 생각하면 즐겁게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누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길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구름 기둥이 될 것이며 불기둥이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너는 내 것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신분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 가지고 삼시다. 그것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평소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이 잘되어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용서합시다

부인이 수첩에 항상 남편의 사진을 넣고 다녔다. 친구들이 그 이유를 묻자 "꿀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사진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당신은 어쩌면 그토록 남편을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대답을 한다. "그렇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어 금방 해결된다"고 했다. 한 집에서 한 술밥 먹고 살면서도 원수처럼,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불편한 진실"이란 코너가 있다. 겉으로는 친한 척 대화를 하지만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는 가식적 대화와 관계를 말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대상들은 다 우리의 가족이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만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가 한없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성경에 보면 라반이 말한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은 화해의 몸짓을 하며 서로 언약을 세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다. 아람도 이 시점에서는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마침 라반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된다.

사람들 가운데는 화해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먼저 말하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용덕 씨의 "내가 먼저"라는 찬송이 있다.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의견차이로 서로 상처를 주고 그만 관계가 멀어졌다. 어느 날 밤 성령님이 이 사실을 괴로워하고 아픈게 하셨다. 그날 밤 친구를 찾아가 화해하고 친구와 함께 만든 노래라고 한다.

"내가 먼저 손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주길 원했네 나는 어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울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내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 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길 채로....."

친구나 동료, 가족과 다투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 용서를 하면 마음에 평강과 안정을 되찾게 되지

만,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로 괴로워하거나, 복수를 위해 고민하기도 하고, 한 평생 원수처럼 지내기도 한다. 상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아파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약은 자기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용서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용서학' 교수인 프레드러스킨(Pred Ruskin) 박사는 심리학과 의학을 접목시킨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책에서 "사람은 용서할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했다. 필립 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 "용서로 치유 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세상 살다보면 독한 화살에 맞을 때가 있다. 친구에게 남

편을 빼앗긴 사람이 있고 친구에게 돈을 사기 당한 사람도 있다. 심한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고 집단 따돌림을 받은 사람이 있다. 모두 화살 맞은 사람이다. 이때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할 생각이 하지 않고 "어떤 놈이 화살을 쏘았어. 저 놈이 내게 활을 쏘아!" 그리고는 원수를 찾아다닌다. 원수를 독과 함께 품고 산다. 결국 자기가 죽는다. 바로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흐트러졌던 인격을 가다듬어 주는 위대한 힘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영국에 유명한 웰링턴 제독이 있었다. 이 제독이 한번은 상습적인 탈영병 부하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말하기를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보았다. 체책을 들어 너를 때려도 보았고 노동도 시켜보았다. 굉장히 심각한 벌도 주었다. 그러나 너는 돌이키지도 않았고, 새로워지지도 않았다. 벌수 없이 너는 죽어야 한다." 이 때 지혜로운 웰링턴제독 부하 한 사람이 제독에게 나와서 "각하! 각하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각하는

이 사람을 용서해보신 적이 없습니까"고 했다. 제독은 이 지혜로운 부하의 충고대로 무조건 용서를 해주었는데 그 후 이 사람은 변했고 다시는 탈영도 하지 않았으며 웰링턴의 충성스런 부하가 되었다. 용서가 가져온 삶의 변화이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용서"이다.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요 복음의 내용이 용서이다.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표현해 본다면 용서이다.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다.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하고 나면 나무토막만 남을 것이다.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쳐지는 종교이다. 누구나 교회 처음 나오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땅에 생이 마감되고 천국 입구에 들어설 때 용서의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물으실 것이다. "너는 용서받았느냐?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고 여기 왔느냐?"

푸 / 른 / 초 / 장

조일래 목사
(서울, 수정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감사는 믿는 자의 성숙한 신앙인격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감사하는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채우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감사 그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감사들 중에서도 더욱 아름다운 감사, 더욱 돋보이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1. 역경에서의 감사가 더욱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풀려갈 때 감사합니다. 득남 득녀, 좋은 학교 합격,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건강회복, 승진, 영전, 승리, 성공 등을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일이 뒤틀리고 역경의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 훨씬 돋보이는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순경에서의 감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감사지만 역경에서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참으로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욥(욥1:21)이나 다니엘(단6:10)의 경우 정말 놀랍고도 향기 넘치는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영국의 밀턴(1608-1674)은 44세

2. 남을 위한 감사가 더욱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세상 소리를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원수도 사랑

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시련 속에서 그는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주께서 세상을 향한 나의 눈을 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향기로운 감사를 받으시고 훗날 욥에서 더 큰 복을 주셨고 다니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으며 밀턴에게는 실낙원과 복락원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며 위하여 복을 받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도록 명령받은 자들입니다.

남을 위한 감사는 가장 큰 계명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마22:36-40)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는 새 계명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남을 위한 감사입니다.

3. 넘치는 감사가 더욱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큰 부자집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그는 너무 기뻐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화려한 가든파티를 열었지만 하나님께는 겨우 2만원의 감사헌금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큰데 감사는 쥐꼬리보

다 적은 형식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는 참 믿음에 서만 우러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넘치는 감사도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남을 위한 감사입니다.

4.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감사가 더욱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감사를 싫어하십니다. 1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이나 향유 옥함을 깨뜨린 죄 많은 여인처럼 참 믿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정한 감사인 넘치는 감사로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루하루의 자녀됨으로 인한 감사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가장 큰 감사요, 이 감사는 항상 드릴 수밖에 없는 감사요, 이 감사는 영원한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로 병들어 죽어간다는 할지라도 이 감사만은 항상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내 재능, 내 재산, 내 목숨을 다 바쳐 감사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합3:17-18)라는 고백이야말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은 구원,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감사들이 우리 삶 속에 늘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보통 좋은 것을 받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 대신에 영광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사랑, 보호,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시23:1).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 많

더욱 아름다운 감사 (빌 4:6-7)

다 적은 형식적인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축랄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감사도 넘치는 감사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2:7)고 말씀하십니다.

망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는 자는 "이 엄청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 많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5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5.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Dates: May 11(Mon.)-13(Wed.), 2015 (New York); May 15(Fri.)-18(Mon.), 2015 (Brazil Iguazu)
- Place: New York; Adria Hotel & Conference Center
221-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Brazil Iguazu; Inquire with the Clerk of the ExaminationCommittee :

3. Examination Subjects

-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 OT Exegesis Text - Genesis 6:1-4
 - NT Exegesis Text - Acts 9:10-19
 - Thesis Topic - Discuss the necessity of denominations from a Reformed perspective.
 - Sermon Text - Isaiah 40:26-31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5.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the candidates.
-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9-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appropriate examination dates (New York: May 11-13, 2015 or Brazil: May 15-18, 2015) through Rev. Young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Young Kee Kim / Address: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Cell : 443-520-5242 E-mail : youngkey48@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Kil Ho Lee (718)309-3376 (kilhlee2003@yahoo.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oung Kee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총회장: 정관일목사 서기: 최동진목사 고시부 부장: 이길호목사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자살 예방책과 가이드라인 - 더 이상 고개 돌릴 수 없는 한인사회 속까지 들어온 자살

오늘은 자살에 대한 예방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정신질환 "감정장애"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1/3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살시도를 하고 자살에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지, 자살시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

물건들을 나눠주기 시작 △공격적이 된다.

자살시도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갑작스런 감정"들 △우울증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짐 △분노, 격분 △화를 자주내거나 급도로 예민 △굴욕감을 자주 느낌 △불안정, 불안함.

환경적인 요소들

것입니다. 자살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걸 알면 빨리 교회 목사님들, 리더들께 알려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리더들은 교회 안에 이런 상담과 자원(resources)들을 성도들이 구하기 쉽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장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살시도나 자살기도를 하는

대한 영적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약물치료만 하는 것이고, 환자가 "미친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사실은 "영적공격으로 인한" 경우인데도 정신병원에 넣는 경우를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은 위의 리포트들처럼 결국 대부분이 깨어진 가정, 불화가정에서 온 깊은 상처와 고통의 결과물이며, 어떤 것들은 영적 공격들이 실제로

자살시도 초기 치료 효과적...교회내 상담자원 준비 정신질환은 영적 공격인지를 가려내는 분별력 필요

서 아래와 같이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들은 CDC, NIMH, APA Mental Health 자료들을 총 정리한 것들입니다.

자살율을 높일 수 있는 Historical Background들 △자살시도를 이미 한적이 있음 △가족 중 자살 역사가 있음 △심한 우울증, 정신질환이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있음 △술과 마약 중독 △극심/치명적 스트레스가 있거나 중요한 사람을 잃은 일로 인한 충격 △권총같은 무기가 가까이 있음 △다른 자살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음 △투약자



있습니

다. 의학적으로 약물치료를 통해서 잠깐의 감정 절제는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병을 낫게 하는 해결책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의학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세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료되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선한 청지기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20여년간 수많은 상담을 사람들에게 해주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것을 목격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려왔던 분들 중에는 너무 아파서 잊어버렸던 일들을 꺼내게 하신 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심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과 어둠의 역사로부터 아픈 자녀들이 해방되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찾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적, 심적, 육적 질병에서 고치실 수 있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살 예방 강의나 자료들이 필요하면 tvnext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자들의 갑작스런 "Talk" △나는 죽어버리고 싶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남에게, 가족에게 짐만 된다 △완전히 갇힌 기분이다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다.

자살시도자들의 갑작스런 "행동들" △급증하는 술과 마약 사용 △온라인이나 주위에서 죽을 수 있는 자료,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함 △난폭한 언행 △평범한 생활을 안하려고 함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 △너무 자거나 너무 잠을 안 잡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잘 지내라' 인사 △자신의 소중한

△자살 전염성 - 주위 가족, 친척, 친구, 또는 모르는 사람이나 같은 학교, 직장, 등 내 주위에서 자살한 사람이 생겨날 때 △주위 가족에게 짐만 된다 △완전히 갇힌 기분이다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다. △극심한 괴롭힘, (가정, 부모, 자녀 등등) 관계문제, 직장을 잃음 등의 환경문제로 심각하게 깊어진 스트레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초기에 잡아라! 위와 같은 증상들이 '나 자신'에게 또는 내 주위사람들에게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병이든 초기에 찾아서 빨리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한줄기 소망과 빛을 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사님이나 교회에 상담해 주실 분들이 안계시면 신앙 좋은 크리스천 상담가를 만나서 심리상담 또는치료(Therapy)를 받도록 강력히 권면합니다.

의료 도움받기 이미 긴급한 상황일 때는 우선은 911에 연락하여 의사들의 도움을 먼저 받고 정신안정이 된 후에 다시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도움을 받을 때 꼭 알아야 할것은 의학에선 영적세계를 모르고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생긴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영적세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인지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어느 지역의 교회에 담임으로 초청이 되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2년이 지나가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특히 목회자로서 어떤 준비와 변화가 필요한지요?

A: 목회는 다양한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여건이 형성되어야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의 탁월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지도력이란 성령충만한 힘과 탁월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종합예술입니다. 교인들은 이성으로 납득해야 하지만 이성만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감정과 부딪쳐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모름지기 사람들을 설득하고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인격과 사역의 용량 키워야...글로벌과 로컬의 균형 필요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리더십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사역자의 용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격의 용량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각 사역자마다 인격과 은사와 믿음의 용량이 다릅니다. 목회자가 인격의 용량이 넓지 못하고 부족하면 사역하다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역자의 넓은 마음과 포용성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역자의 훈련을 통하여 넓힐 수 있습니다. 인격의 용량은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인격의 용량은 온전한 마음 받아 필요하고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섬김과 용서의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는 사역의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사역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제자훈련을 통해 믿음과 영성과 비전을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여 한 팀이 되어 사역의 용량이 커집니다. 특히 목회자의 입장에서 사역의 용량을 키우려면 지성(Intelligence)과 영성(spirituality)과 능력(ability)과 충성(Loyalty),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대개 지도자들은 능력이 있으면 충성심이 부족하고 충성과 겸손이 있으면 디테일한 전략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지성이 있으면서도 영성이 깊고 디테일하면서도 능력이 있고 충성과 겸손이 있는 사역자로서 균형을 갖추는 것이 사역의 용량을 넓히는 데 중요합니다.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하고 로컬하면서도 글로벌한 안목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귀중히 여기면서도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사역의 어떤 위치를 주장하지 않고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으로 될 때 자신의 용량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용량이 작다고 해서 그에 맞게 사역을 하면 사역의 용량은 담보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큰 꿈을 키워야 합니다. 사역의 용량을 넓힐수록 인격의 용량은 따라오며 사역의 용량이 커지다 보면 교회의 용량도 넓어지게 됩니다. 목회자의 용량과 평신도 지도자의 용량의 크기에 따라 교회사역의 용량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뉴욕 동노회 소속, 주 사랑 장로 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 격 1. 이민 목회에 소명이 있고, 2세 교육에 사명과 비전이 있는, 만45세~55세에 해당하시는분 2. 4년제 대학 졸업후 정규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또는 신학 석사 이상의 과정을 졸업하신분 3. 인정된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가입 가능한분 4. 미국거주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 제출서류 1. 한글 및 영문 이력서 2. 본인 소개 및 목회 소신서 3. 신학교 졸업 및 목사 안수 증명서 4. 최근 6개월 이전의 설교 CD 혹은 동영상(DVD, 웹사이트 주소) 2편 5. 가족 사진 첨부된 가족 소개서 6. 추천서 (2인) 반드시 추천인 자필 서명 7. 현 시무 교회 후보

제 출 처 주사랑 장로 교회 청빙 위원회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209-08 48th Ave Bayside, NY 11364

서류마감 2015년 4월 10일 까지

문 의 담임목사 청빙 위원장 김성욱 (718-751-5556, seongwook.kim@prudential.com)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 장로 교회

www.joosarangny.org Tel. 718-229-8855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위치한 타코마삼일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본 교회는 설립 22년 된 교회로 자체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복음언약교회(The Evangelical Covenant Church) 교단에 가입한 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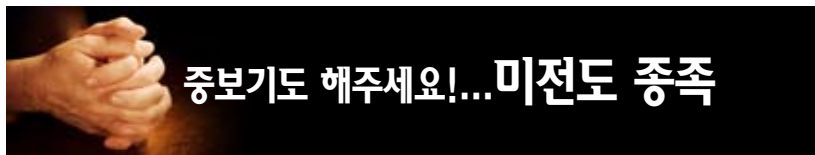
- 1) 자 격: 1. 정규 신학대학Th. M 혹은 M. Div 학위 이상 소지한 분 2. 목사안수후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3. 미국 시민권/영주권 소지자 4. 2중언어 (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 2) 제출서류: 1. 이력서 2. 최종학력 증명서 와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소개서 (가족소개 및 사진포함) 4. 최근 음성설교 2편 (해당 CD/DVD) 5. 목회비전 및 신앙고백서

- 3) 제 출 처: 1. 우편: 삼일교회 청빙위원회 Tacoma Trinity Church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2. E-Mail: tyyounglee@gmail.com

- 4) 제출마감: 2015년 2월28일 까지 5) 기타사항: 접수서류는 반환하지않으며 선입된분예한해서만 개별통지 드립니다. 전화문의: 이영환 청빙위원장 (360-265-4961)

타코마 삼일교회 TACOMA TRINITY CHURCH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남아시아의 구주르 라자스탄니(GUJUR RAJASTHANI)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구주르족의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구주르족은 3개의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칭해 "구주르 라자스탄니족"이라 알려져 있다.

여러 이슬람 집단들이 11세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을 침략하기 시작하자 힌두교도인 구주르족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개한 이웃 힌두교도들은 봉기를 일으켜 이 지역을 장악했다. 구주르족은 결국 자기들의 땅을 떠나야 했으며 다른 곳의 좋은 목초지를 찾아 나섰다.

삶의 모습 11세기에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후 구주르족은 빈곤한 삶과 문맹, 사회적 억압에 찌들려왔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순박하며 비공격적인 사람들로서 관대하고 호의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 오늘날 인도에 살고 있는 구주르족 대부분은 법을 잘 지키는 목자와 농부들이다. 불행한 것은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보다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로부터 흠대를 당하고 있으며 종종은 도둑과 방랑자라는 라벨이 붙여진다.

리적인 경계선을 따라 널리 2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무슬림 구주르이고 또 하나는 힌두 구주르이다. 무슬림들은 계절적인 유목민들로서 정착기 동안 창문 없는 방 하나뿐인 가옥에서 거주한다. 한편 힌두교도들은 1년 내내 같은 장소에서 사는 정착농들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구주르족 대부분 집시로서 땀장미, 방랑연주자, 무역상, 점장이 같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많은 이들이 지금 히 가난하고 구걸이나 범죄에 빠지기도 한다. 또 여름철 동안 동부의 계곡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목 염소사육자들도 있다.

가지고 있다. 집안의 가리막 없는 화로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집안 이 대개 어둡고 연기가 자욱하다. 구주르족은 수백개의 씨족으로 나뉘며 부계사회로 유산은 아들에게 물려진다. 결혼은 대개 부모 중매로 하며, 현금이나 물소가 신부의 가족에 지불된다. 씨족 외부인과 결혼도 허용되며 젊은 부부는 일반적으로 시가지 근처에서 산다. 3개의 구주르족 모두가 구주르어를 말하는데 이는 인도-아리안 어군에 속한다. 이러한 공통요소가 그들이 구별되는 하위 집단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부의 구주르족은 집에 코란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신상을 숭배하며 "홀리(Holi)"와 같은 전통적인 힌두교 축제를 지킨다. 무슬림인 구주르족은 힌두교 관습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무슬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힌두교 공동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카쉬미르의 무슬림들은 최근 카쉬미르에 들어온 구주르인 무슬림 유목민들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했다.

필요로 하는 것들 구주르족은 성경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주르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 문자를 개발하거나 지역 언어 중 하나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마도 이것은 기독교 교사들이 구주르족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해리포터 워터 스코틀랜드 소녀, IS 모집책으로

최근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고 가출한 영국 소녀들의 배후에는 앞서 시리아로 떠난 스코틀랜드 출신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신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런던 개트릭 공항에서 친구 2명과 함께 터키 이스탄불행 비행기를 탄 샤미마 베이검(16)은 이를 전인 15일 아르사 마흐무드(20)의 트위터 계정에 "꼭지를 보낼 수 있게 나를 팔로우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집을 떠난 뒤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입국해 IS 무장대원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마흐무드는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IS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CNN 보도에 따르면 마흐무드가 운영하는 텀블러 블로그에는 IS 대원들과 다친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진 등과 IS 합류에 따른 보상을 설명하는 게시물 등이 올라와 있다. IS 대원이 되면 알라로부터 "수도·전기 사용료가 무료인 집을 공짜로 받고, 사후에는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마흐무드는 적었다.

또 언론이 지하드(성전) 가담자들을 현실에서 실패한 '무제'로 묘사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 만난 자매들의 대다수는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행복한 대가족과 친구 등 모든 것을 갖춰 얼마든지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딸이 알라를 위해 배운 미래를 저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이해한 부모들은 자녀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흐무드의 게시글은 10대를 먼저 끌어들이면 부모까지 포섭할 수 있다는 속내를 비치기도 한다고 CNN은 보도했다. 마흐무드는 "옛 가족이 조개껍데기라면 새로 얻게 될 가족은 그 속의 진주"라면서도 "국경을 넘은 뒤 가족에게 처음 전화를 걸 때가 가장 힘들다. 이제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거나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마흐무드의 부모는 딸에게 보내는 성명에서 "너는 가족과 스코틀랜드인들의 수치이며, 네 행동은 이슬람을 사악한 쪽으로 왜곡한다"면서 "가족들은 네 언행으로 인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파키스탄 태생인 마흐무드의 부친은 1970년대 글래스고로 거처를 옮겨 스코틀랜드 최초의 파키스탄 출신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가 됐고, 마흐무드를 비롯한 네 자녀를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유복하게 키웠다. 마흐무드는 골드플레이의 음악을 즐겨 듣고, 소셜 해리포터와 헝거게임이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2011년 시리아내전이 발발한 이후 폭력사태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무란(이슬람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고교 미국사 교과과정 '보수와 들결' 확산

미국 내에서 고교 미국사 교과과정을 둘러싼 이념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보수파들이 득세하면서 일부 주에서 고교 미국사 교과과정에 미국의 건국이념과 애국심, 자유경제 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하자 보수-진보진영 간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18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오를라호마 주에서는 지

난 16일 일선 고교에서 고교 미국사 AP(Advanced Placement) 교과과정 대신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AP는 우수한 학업능력을 갖춘 고교 학생들이 미리 고교에서 대학 학점을 수강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 제도다.

법안 입안자인 덴 피셔(공화) 주 의회의원은 "AP 교과과정은 미국사의 어두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일선 학교에서 미국의 건국정신과 애국심, 자유경제 체제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고교 교과과정에서 미국의 건국이념과 자유시장 경제시스템, 미국의 예외주의(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 국가라는 것)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를라호마 주 고교생들은 메이플라워 맹약과 권리장전,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40주년 기념 연설 등의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 특히 법안은 새로운 미국사 교과과정의 채택을 거부하는 학교는 교부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법적 규정까지 넣었다.

앞서 지난해 콜로라도 주에서는 덴버 교육위원회가 미국사 AP 교과과정에 권위에 대한 존경, 애국심, 자유경제 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실제로 오를라호마·콜로라도 주 외에 다른 주에서도 고교 미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사 교과과정을 둘러싼 이념논쟁은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SAT 주관사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가 미국사 AP 교과과정을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도록 재설계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보수파들이 대거 입법부와 일선 교육구를 장악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이들은 미국사 AP 과정이 급진·수정주의 노선을 밟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문제는 보수파들의 교과과정 수정안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 등 흑인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언급이 대폭 축소되고 아메리칸 원주민인 인디언 학살 부문이 빠

지는 등 미국의 어두운 역사가 대거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칼리지 보드 측이나 일선 교사들은 보수파들의 교과과정 개편은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으며, 일부 교육위원회가 교과과정 전면 재검토를 위한 포석 차원에서 검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IS "로마 정복할 것" ...이탈리아와 유럽 위협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우리는 로마에 간다'는 새로운 트위터 해시태그를 만들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IS는 트위터에 스키 마스크를 쓴 무장 IS 대원들이 IS 깃발을 단 수십 대의 군용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여러 사진을 올리고 'IS가 로마에 가는 것은 신의 뜻'이라 위협하며 새로운 해시태그를 만들었다. 이것은 중동의 시리아와 이라크,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이어 이탈리아에도 IS의 테러 공격이 임박했다는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협을 제기한 것이라고 이 언론은 분석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는 최근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 20만 명이 이탈리아 등 남유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이탈리아가 지금까지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위협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정보기관 당국자의 우려가 소거되기도 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리비아의 질서 회복을 위한 유엔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안젤리노 알파노 내무장관은 "허비할 시간이 없다. 서방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알아야 한다"며 유엔의 개입을 촉구했다. 알파노 장관은 이탈리아에 들어오려는 IS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으로 위장할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베르타 피노티 국방장관은 15일 내전 양상을 보이는 리비아에서 IS 진격에 대응해 싸워야 한다며 유럽과 북아프리카 국가로 이뤄진 다국적군을 주도할 체제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영어부 사역 담당 목회자 청빙

- 1. 사역대상 대학생 및 직장인 (80-90인 출석) 이 주요 사역 대상입니다. 중·고등부 (70-80인 출석)
2. 자격 1) 미국 정규 신학교 졸업자 (M. Div 소유자) 2) 목사 안수 받은 자 (5년 이상 목회 경험자 선호) 3) 1.5 내지 2 세대 영어에 능통한 자
3. 제출 서류 1) 자필 이력서 (가족 사항 포함) 2)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안수증 4) 2회분 설교 tapes 또는 discs 5) 간증문 및 목회 vision 진술서(나는 어떤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왔는가) 6) 추천서 2통 (목회자와 일반 성도로부터 각각 1통씩)
4. 제출 기간 3월 31일 까지
5. 제출처 청빙위원 Samuel Lee: lee.1371@gmail.com / 당회장 이근상 목사 lee@mykoreanchurch.org Tel. 614/ 764-8960 ext.101 / Mailing address: 2825 Snouffer Rd. Columbus, Ohio 43235
6.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습니다. 면담 후보로 선출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콜럼버스 한인교회

주일 학교 교육 전도사를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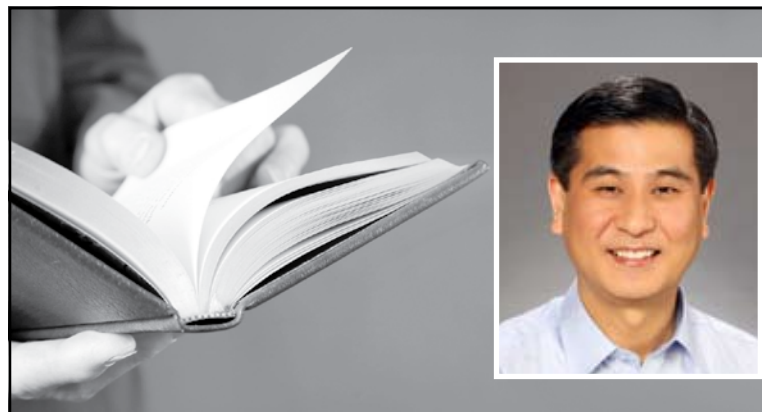
1. 주일 학교 교육 전도사

-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하신 분
- 교사들을 지도해주실 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
-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lapc2@sbcglobal.net)이나 전화(323-954-884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Los Angeles Presbyterian Church)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8)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교회 - 성경의 정경화 (2)

예수도 성경을 사용하셨을까? 그렇다. 그는 12살 어린 나이에도 그 당시 최고의 성경 권위자들을 압도할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40일간 금식을 마친 후에 수를 향해 시합하며 달려드는 사탄의 유혹을 성경을 인용하여 물리쳤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을 강조하였다.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한 그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였다.

질문: 그렇다면 나는 예수가 사용한 성경과 현재 우리의 손에 주어진 성경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1) 교회역사를 보면...

■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연속성
예수가 사용한 성경은 구약성경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된 예수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

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 당시 널리 사용되던 구약성경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약이 이미 세 부분(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으로 분류되었다. 글로 기록된 문서

시켜 예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 외경, 위경, 정경

예수 당시 구약성경은 두 언어로 전승되어왔다.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 외에도 약 3세기 전에 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칠십인역(LXX)'이다. 이중 헬라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중간시대에 기록된 15권의 '외경(Apocrypha, 外經)'이 포함되어 한 묶음으로 읽혀졌다. 이미 구약 39권이 확정된 후에 기록되었지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받은 글들이다. '외경' 외에도 '위경(Pseudepigrapha, 偽經)'이라고 불리는 글이 있는데, 주로 목시록이나 전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담, 에녹, 노아 또는 모세와 같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위로 주장한

다. 예수 당시에 구약 성경 이외에도 '외경'과 '위경'이 읽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가 사용한 성경은 사도들을 포함한 유대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정경(Canon, 正經)'이다. '정경'이란 길이를 정확하게 셀 수 있는 자가 없던 시대에 대응으로 썼던 긴 막대기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써, 어떤 것을 재는 기준이나 척도라는 뜻이다. 즉, '정

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신자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절대적 규범이 되는 규범적인 성경 목록이다. '정경'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다.

■ 암니아 종교회의(90년경), 카르타고 종교회의(379년) 주후 90년경에 팔레스틴 지중해

장하는 기독교의 도전에 맞서기 위함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주로 사용한 헬라어 번역본이 헬라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신약성경의 정경화'라는 숙제를 풀어야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397년 카르타고에서 개최된 공의회에서 현재 우리가 사

용하는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마치 구약성경 '정경' 외에 '외경'과 '위경'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복음서와 행전들, 그리고 서신들과 목시록이 널리 유포되고 읽혀졌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는 후에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글들이 외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글들과 전혀 그렇지 못한 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정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염두에 두었다. 사도성(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글이라는 증거), 내용성(충실한 영적 성격을 지닌 증거), 보편성(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증거), 그리고 영감성(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증거) 등이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디모데후서 3:16-17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 안에 담겨진 중요 사상은 물론이지만 역사적 사실들과 인명 또는 지명과 같이 상세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손에 기록되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교회와 장시간에 걸쳐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정경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인간이 발견한 것 신약성경의 정경화는 사도성, 내용성, 보편성, 영감성 등을 염두에 뒤

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구약 전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였다. 이미 우리는 신약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라는 틀에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구약 역사는 신약의 관점에 관찰되어야 하며, 신약의 역사도 구약의 흐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한 분의 자이신 하나님께서 40명들을 감동

약 중간시대에 기록된 15권의 '외경(Apocrypha, 外經)'이 포함되어 한 묶음으로 읽혀졌다. 이미 구약 39권이 확정된 후에 기록되었지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받은 글들이다. '외경' 외에도 '위경(Pseudepigrapha, 偽經)'이라고 불리는 글이 있는데, 주로 목시록이나 전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담, 에녹, 노아 또는 모세와 같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위로 주장한

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일곱 민족들이 있었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다. 거대한 아나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38년 전에 가나안에 쳐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해야 한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내쫓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여호수아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함께 있겠다.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일까?

여호수아는 장군이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다. 일찍이 가나안 정탐 때도 당장 가나안으로 쳐들어가지고 했던 사람이다. 또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치른 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다. 여호수아는 8년 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을 벌

였다(수11:16-17, 21-23).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이 31개였다(수12:7-24). 아이사 전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한 번 패한 것 외에는 전승을 거두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자신이 개척해서 대형 교회, 그것도 초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 교회 후임자로 간 목사님이 있다고 하자. 그런 교회의 후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교회의 경우 후임목사가 와도 교회들에게는 여전히 전임목사가 그들의 목사로 남아있을 것이다. 후임목사가 무엇을 해도 전임목사와 비교될 것이다. 후임목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전임목사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였다. 하나님은 그의 이런 심정을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4)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언합감리교회 담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줄로만 알았다. 그들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모세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들의 영웅이었다. 그들은 모세에 의해 40년 동안 '길들여진' 모세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도록 하셨다. 요단강 앞에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가지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시종'으로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40년 동안 모세의 그늘에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영원한 2인자로 남을 줄 알았었다. 그들은 모세에 의해 제1인자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드디어 영원한 2인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 기뻐했을까? 모세의 시종에서 벗어

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이 기뻐했을까? 아니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여호수아의 취임석상에서 하나님은 단 하나만 권면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다(수1:5-6). 여호수아가 신이 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는가?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들어가지만 하면 되는 것

였다(수11:16-17, 21-23).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이 31개였다(수12:7-24). 아이사 전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한 번 패한 것 외에는 전승을 거두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자신이 개척해서 대형 교회, 그것도 초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 교회 후임자로 간 목사님이 있다고 하자. 그런 교회의 후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교회의 경우 후임목사가 와도 교회들에게는 여전히 전임목사가 그들의 목사로 남아있을 것이다. 후임목사가 무엇을 해도 전임목사와 비교될 것이다. 후임목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전임목사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였다. 하나님은 그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권위와 능력을 주겠다고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수4:24). 또 다른 이유는 여호수아를 위해서였다(수4:14).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다(수1:16-18).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를 지도자로 섬기고 따를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겠는가? 이메일: jinhee1004@yahoo.com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충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p>2015년 1월</p> <p>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3일 (합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p> <p>2월</p> <p>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일 ~ 25일 동중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p> <p>3월</p> <p>1일 ~ 3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5일 중신대학교 심령수련회 (합동)태백시찰 연합성회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3일 ~ 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p>	<p>4월</p> <p>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일 ~ 29일 화명교회(이재욱목사)</p> <p>5월</p> <p>1일 ~ 1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일 ~ 2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p> <p>2014년 1월</p> <p>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형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일 ~ 15일 우리교회(김호경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p> <p>2월</p> <p>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p>	<p>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p> <p>3월</p> <p>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원홍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30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p> <p>4월</p> <p>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재물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한구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p> <p>5월</p> <p>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호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p>	<p>6월</p> <p>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종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신교회(한기형목사)</p> <p>7월</p> <p>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아목사) 27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p> <p>8월</p> <p>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LA 평화교회(김은목사)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희준목사)</p> <p>9월</p> <p>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이종일목사)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제목사)</p>	<p>24일 블레싱 센터교회(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28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p> <p>10월</p> <p>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p> <p>11월</p> <p>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클 블레싱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수련회 강의 신모철 철야기도회(GST)</p> <p>12월</p> <p>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승려의밤(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p>
--	--	--	--	--

창조과학 칼럼 (224)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33) 아담에게 밝힌 개미

수백만 년의 오랜 역사를 주장하는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반론하며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아담에 밧혀 죽었을 개미에 관한 것이다. 진화론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죽음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밧혀 죽었을 개미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진화론자들 혹은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변형된 창조론들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이 출현하기 전에 수억 년 동안 삼엽충을 시작으로 해서 각종 물고기들, 양서류들, 파충류들, 그리고 조류와 포유류 동물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억 년의 지질시대표에 배열되어 있는 모든 화석들은 불과 수백만 년 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유인원과 10만 년 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조물들에게도 죽음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으며 회복시켜주시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롬8:22). 그래서 구원자이신 창조자 예수님이 육체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의

완성될 것이다(계21:4). 성경에 의하면 지금은 타락된 사람과 타락된 만물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금 개미들을 관찰한 결과로 타락 이전을 생각하는 것은 온전할 수 없다. 진화론의 모토인

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던 일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장차 새 땅에서는 죽음이 없는 곳을 조성하신다는 하나님 말씀도 과학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심지어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을 준비하셨다(고전2:9).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도, 천국 소망도 가질 수 없다(히11:3, 6).

마지막으로 생명이 관해서 오래전 칼럼들에서 언급하였듯이, 성경은 피를 가진 동물만을 생명으로 간주한다(레17:11). 식물은 관다발을 통하여 흐르는 액체가 있다. 이것이 흐르지 않으면 식물은 죽고 만다. 그러나 식물이 죽어도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식물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최초의 생명은 창조주 간 5일과 6일째에 창조된 피 가진 피조물들에게만 주어졌다(창1장). 미생물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주의 광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끈 베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금으로 만들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으로 부어 만들찌니라”(출 26:36, 37).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게 덮는 덮개까지도 식양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단 한 가지의 목표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일석 몇조를 피하시는데 거의 복음, 곧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대부분 내포하십니다.

성막은 네 개의 덮개로 되어 있어 밖에서 보면 별 불이 없는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있었습니다. 외면적으론 예수님이 화려한 모습이 없이 별 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직 안으로 들어와야만 미의 극치인 정교한 성소와 지성소가 시야에 펼쳐집니다. 해달은 질겨서 신 만드는데 쓰였습니다. 광야에서 구하기가 힘든 귀한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 만드는데를 하느님의 성소 덮는 것으로 내어놓으려 하십니다. 저들은 순종하였고 저들의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고(신19:5)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를 반드시 돌려 주셨습니다.

셋째 덮개는 붉은 물들이 수양의 가죽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덮으시는 피로 물든 십자가입니다. 둘째 덮개는 염소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속제 아사살 염소 주님이십니다. 성소와 지성소와의 바로 위를 덮는 첫째 덮개는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그룹을 베실, 청(인자로의 예수님), 자(왕이신 예수님), 홍색(예수님의 십자가)의 실로 수놓고 짚습니다. 주님의 모든 완성된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결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사해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고픈 주님의 열망이 여기 저기 배어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만나주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토록 우리와 가까이 하려는 주님의 마음을 나는 언제까지나 모른척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과 귀는 어두워 내 뜻대로 시원스레 당장 들어주지 않으니 것만 크게 보입니다. 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깊은 사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재미없고 괴로운 문제들에서 눈을 떼어 봅니다. 네 겹의 덮은 휘장들을 지나며 이 무겁고 힘든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병든 몸과 영혼! 풍파에 찢겨 지친 이대로 당신의 품안에 쓰러집니다. 날 받아 주소서! 당신의 장막 안에 안전히 거하게 하소서! 내 영혼에 깊은 안식을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하시어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케 하소서! 당신 안에 있을 때만 내게 평안이 있고, 삶의 소중함이 새롭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광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시간, 공간, 물질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어 피 가진 동물만 생명...개미가 아담에게 밧혔어도 죽은 것 아니야

현대인들이 존재하기 전에 죽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이 생명체들의 죽음은 사람의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를 받아들인 창조론자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 죽음을 만든 하나님은 비난 받아야 할 분이며, 죽음의 이유도 확실하지도 않다. 또, 아담도 타락 이전에 어쩔 수 없이 개미를 밧아 죽였을 것이므로 타락 이전에 죽음이 있었을 것이 확실한데 '왜 타락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몇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미의 목숨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과 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6일 동안에 완전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사람과 동물들은 모두 다 초식을 했으므로 사람이 있을 수 없었다. 성경은 한 사람 즉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람이 왔다고 말한다(롬 5:12).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은 사람에게 뿐 아니라 다른 피



화석(죽은)으로 구성된 진화론의 역사

‘현재는 과거의 열쇠’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이 아니다. 지금 개미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창조 때의 방식이 같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타락 전에는 개미들이 땅 밑에서만 살았는지도 모른다. 사람과 동물과 무생물들은 저주를 받아 모두 다 변형되고 변화되었다(창3장). 우리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기준으로 타락 전에 죽음이 없었다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도 않고 엄청난 대담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고전 15:21, 22, 16). 그리고 언젠가 만물이 회복될 것이며, 눈물과 아픔과 죽음과 질병이 없는 세상이 되어 창조의 목적이

타락 이전에 개미가 사람에게 밧혀 죽지 않게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도 못하실 이유가 없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40여 년의 긴 여정

들과 벌레들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는 식물도, 미생물도, 벌레들도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전 칼럼들에 썼듯이 이런 벌레들이나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분해나 영양 흡수를 위한 한 과정을 담당하도록 동시에 창조되었지 성경이 말하는 생명체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개미가 아담에게 밧혀 죽었다 해도 그것은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다(레17:11, 14).

아담과 개미의 관계가 타락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 전에는 죽음이 없었다는 성경의 명백한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충분히 논리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며,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진화론은 창조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명심해야 한다. 진화론은 영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최근의 미국과 한국에서 예배당의 문을 닫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메일: mailforwscchoi@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세브레나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jehsemang.org	뉴욕몽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St.,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eahoc.org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권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och.com	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584-5780,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jehsemang.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YM영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jehsemang.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 1부, 3부) Tel: (201)342-9194, Fax: (201)3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창립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특별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후 1:30 수요일 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us.org Tel: (516)333-7157, (516)476-4084 18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c.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좋은목자교회 담임목사: 김신영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OT모임: 오전 9:30(화-토) Tel: (516)584-4088, www.joungmokchurch.org 1 West Hill Court Huntington Station, NY 11746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새벽기도회: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2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qcn.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pccv.org E-mail: hanmikr@hotmail.com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r,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주일학교: 오전 7:40 유,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스페나쉬 성결) Tel: (595)211-574-985 E-mail: hanmikr@hotmail.com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www.hawaii.chpress.org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8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press.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3.1절 기념행사 OC, LA 각각 열린다

OC/ '...평화통일 소망기도회', LA/ '...이민 112주년 음악회'

3.1절을 맞아 삼일절 기념예배 및 기도회가 오렌지카운티와 LA 지역에서 각각 개최된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행사를 위해 19일 오전 11시 갈보리선교교회에서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샌디에고협의회(회장 권석대 목사) 임원진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3월 1일 오후 4시30분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신상은 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에서 '3.1절 기념 평화통일 소망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LA 지역에서는 남가주주인 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주관으로 피종진 목사를 초청 '제 96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이민 112주년



19일 기자회견을 가진 OC교협, 평통, 샌디에고 협의회 임원들.

음악회'를 일석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4350 Wilshire Bl. LA)에서 저녁 6시30분에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에는 미주여성코랄, 한인기독교합창단, 이화코랄, 캠퍼스, 코랄레움, 속명 칸테모스, LA 남성

선교합창단들이 대거 출연한다. 티켓은 20달러. 행사에 관한 문의는 (323)708-9191, (213)820-9414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축복의 찬양세미나 'The Blessing'

남가주 교회연합 주최, 강사 민인기 홍정표 윤임상 교수

남가주 교회연합 축복의 찬양세미나 'The Blessing'이 오는 3월 1일(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남가주 살롬교회(20050 S. Vermont Ave Torrance)에서 열린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사)와 빛나라 출판사(대표 손중목)가 주최하고 남가주살롬교회가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 남가주 지역의 찬양대원 및 지휘자, 반주자 등 음악사역에 필요한 음악적 훈련과 영성을 다루게 된다. 강사로는 민인기

교수(수원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와 홍정표 교수(서울장신대학교),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학교)가 찬양대를 위한 음악적 테크닉, 효과적인 찬양연습'에 대해 강의하며 찬양대원들을 위해 '은혜로운 찬양대, 신력있는 찬양대가 되려면?'이란 주제로 강의한다.

이 세미나를 위해 LA를 방문한 빛나라 출판사 손중목 대표는 20일 12시 로텍스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세미나에 대한 설명회

를 가졌다. 손 대표는 "한국과 미국에서 명성이 있는 강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갖게 돼 기쁘다. 한국에서 교회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경험이 이곳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본 세미나는 4시부터 6시30분까지 SAB 성가 2집, 빛나라 14집을 교재로 세미나가 진행되며 저녁 식사 후 7시20분부터 시범연주, 8시30분부터 라크마 합창단을 초청, 연주회도 갖게 된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 및 저녁 식사포함 20불.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을 당부했다.

자세한 것은 (909)908-1673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성대학교는 제68차 ABHE 정기총회에서 ABHE정회원 승인을 받았다

미성대학교 ABHE 정회원 승인

ABHE 68차 정기총회, 해외학생모집 기대

미성대학교(AmericaEvangelical University, 총장 류종길 목사)가 지난 2월 18일 북미주 기독교 고등교육 인가기관인 ABHE(Association for the Biblical Higher Education) 제68차 연차총회에 앞서 열린 인가심사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과정을 통과해 정회원으로 승인받았다.

미성대 류종길 총장은 "지금까지 이룬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 앞으로도 북미주 주류의 전통 있는 복음주의 신학대학들은 물론 한인교단들이 세운 모범적인 대학들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 그래서 미주지역의 다양한 목회사역과 해외선교를 위

한 실력 있는 사역자를 배출해 하나 나라에 유익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류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SEVIS를 비롯해 정부기관의 행정인가 과정, 그리고 교육부의 학위 인가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했으며 이번 성과를 위해 이전부터 헌신해온 전임 총장들과 교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미성대는 현재 한국과 아시아의 여러 선교지역에서 현지 선교사들로부터 추천받아 입학한 유학생들이 다수 수확하고 있어 향후 해외까지 학생모집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부의 기독교학과, 대학원의 목회학과(M.Div), 신학과, 상담학과 등에 유학생 비자를 위한 I-20를 발급하며, ESL과정에서도 원어민 교수들에게 영어 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 법률칼럼



지니 정 변호사

오바마 추방유예(DACA)

기다리시던 오바마 추방유예(DACA) 신청이 드디어 2월 18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자격과 준비서류 그리고 절차에 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나이 상관없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로 최소 2010년 1월 1일부터 5년 이상 미국 계속 거주한 자.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서류미비자 신분이 된 자.

준비서류: 미국여권용 사진 2장. 신원증명-유호/만료 여권, 사진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영사아이디 카드...), 16세 이전 미국입국 증명-여권, I-94 출입국기록서, 미국 내 학교 입학기록.

최소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

- 학교 기록: 성적증명서, 졸업증, 재학증명서 등
- 병원 기록: 예방접종, 치과기록 등
- 금융 기록: 세금보고, 은행내역서, 크레딧카드 내역서.

역시. -고용 기록: 세금보고, 재직증명서.. -기타 기록: 유틸리티 내역서(렌트, 전화, 개스...), 교회나 단체 소속 기록.

신청절차: 2015년 2월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지문채취 후 서류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3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거주지 주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추방유예에는 2년전 적용한 2007년 6월 15일 컷오프데이트를 2010년 1월 1일로 연장했고, 31세 이하의 나이 상한선을 없애버려 보다 많은 서류미비자들의 신청이 기대됩니다.

전문인과의 상제한 상담으로 규정에 맞는 철저한 서류접수를 하셔서 보다 많은 해당 서류미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427-9750

미드웨스트대학교 ABHE 정회원 승인

18일 ABHE 68차 정기총회에서... 학위명칭 변경

기독교인으로서 세계 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된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총장/설립자, 제임스송 박사)가 미국 대학교 인준 기관인



ABHE(Association of Biblical Higher Education)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이로써 동 대학교는 미연방정부교육부(USDE)와 미국대학인준협회(CHEA) 외에 ABHE 회원자격이 추가됐다.

미드웨스트대학교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서 열린 ABHE 68차 정기총회에서 정회원대학교(Accredited Member)로 승인됐다. 동 대학교는 지난 1992년부터 연방정부 인가기관의 회원대학교로 시작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정회원 대학교로 있다가 큰 비전과 미래를 위해 이전 인가기관에서 탈퇴

해 역사가 2010년 ABHE에 조인했다. 2013년에 준회원이 됐고 2015년 2월 18일자로 ABHE 정회원대학교로 인준됐다.

미드웨스트는 이번 인준으로 인해 학위 명칭이 BA, MA 등으로 바뀌었고 경영학도를 비롯해 영 어교육석사,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Church Music에서 Doctor of Music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다.

본교의 학위취득 방법은 △본교와 워싱턴 사이트, 한국 사이트에서 학위과정을 영어와 한국어로 수업(SIVIS I-20발행)하며 △온라인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소소집강의와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midwest.edu)를 방문하거나 이메일(usa@midwest.edu) 또는 전화(636)497-5892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플러신학교에서 열린 KDMin 겨울학기 신학과 목회강좌에서 제니 박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플러신학교 KDMin 겨울학기 신학과 목회강좌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한인목회자 가정" 주제

플러신학교(총장 마크 레버튼 박사) 한인목회학박사과정은 겨울학기 신학과 목회강좌를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한인목회자 가정'이라는 주제로 23일 오전 9시35분부터 12시까지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본교 임상심리학 교수인 제니박 교수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했다.

박 교수는 "이민1세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한 어려움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한다. 내담자들 중에는 시간을 두고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빠른 해결을

바란다.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이 됐을 때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1.5세대 2세대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상담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키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루려는 것이다. 반면 가정 내에는 집단주의 성향으로 양육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녀의 결혼문제에 자신

들의 가족정서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가 부모와의 마찰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좌에 대해 제니박 교수는 "목회자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목회현장을 들여다보면 심리학과 신학이 많이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플러신학교에서 현장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강좌를 마련하게 됐고 강사로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5년간 목회자인 남편과 함께 1세목회를 해왔다. 1.5세로서 1세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목회현장에서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은 1세대들이 가진 신앙의 깊이를 뿌리가 어떻게 다음세대들을 양육할지 고민"이라 언급하며, "이민사회에서 많은 부부와 가족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도 이러한 영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크리스천 심리학자들이 세워나가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교회와 선교단체가 힘 모아 커뮤니티를 섬겨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이노비가 설날을 맞아 바겐 양로원에서 공연을 펼쳤다

설날... "이노비 음악과 함께해요"

컬럼비아대학원 한인학생회와 양로원 무료음악회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18일 오후 2시30분 뉴저지 바겐

한인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설맞이 무료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특별히 컬럼비아대학원 한인학생회(회장 김지수)가 함께 봉사로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준비한 간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공연에는 음악감독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박영경(연세대음대, 맨해튼음대 졸, 스토니브룩 박사재학 중), 테너 이성은(메트로폴리탄 오페라콩쿨 우승자), 피아니스트 박주영(맨해튼음대, 미국 쇼팽콩쿨 등 다수 유명 콩쿨 우승), 바이올리니스트 김미경(줄리아드음대 대학원, 럿거스대학박사 졸) 등이 참여해 수준 높은 연주를 했다. 또 공연 마지막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고향의 봄, 설날 등의 한국동요를 불러 어르신들에게 감동의 눈물과 웃음꽃을 선사했다. (기사제공: 이노비)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점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업)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동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 소속 주사랑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이민목회에 소명 있고 2세 교육에 사명과 비전이 있는 만45-55세에 해당하는 정규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 또는 신학 석사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분으로 인정된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단 가입 가능한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제출서류는 이력서, 본인 소개 및 목회 소신서, 신학교 졸업 및 목사 안수 증명서, 최근 6개월내 설교 CD 혹은 동영상(DVD, 웹사이트 주소) 2편, 가족사진 첨부 가족소개서가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4월10일까지.

▲문의: 김종태 장로 (516)523-4959, (718)751-5556 김성욱 장로

한국 국제여름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뉴욕청소년센터(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 대표 양희철 목사)가 한국 한동대학교와 함께 국제여름학교를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한동대학교 캠퍼스와 한국 전역에서 개최한다. 차세대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기 위해 국제관계와 법, 융합과학기술,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한 한동대 최고 교수진의 집중 영어강의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소수 그룹 활동을 통해 강의와 사업체 방문을 통해 배우고 체험한 공동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PPT를 작성해 마지막 날 발표회를 갖는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한동대총장 Certification이 발급된다. 참가대상은 9학년-대학생. 1차 마감 2월28일, 여권복사본 제출 등록자에 한해 참가비는 2,500달러(항공료, 숙식, 관광 입장료, 체재비 모두 포함). 2차 마감은 3월 말로 2,750달러(항공료 예약비용 증가). 출발은 2015년 7월 13일 JFK국제공항.

▲문의: (718)353-1388

뉴저지 부부미션합창단 첫 모임

노래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선교 목적으로 창단된 뉴저지 부부미션합창단(NJCMC, New Jersey Couple Mission Choir, 대표 제이콥유) 단원모임을 겸한 첫 모임이 3월 7일(토) 오후 7시 뉴저지 참된교회(담임 박순진 목사, 24 W. Sheffield Ave. Englewood)에서 열린다. 믿음과 섬김으로 함께 사역하기 원하는 부부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toki1023@hotmail.com

▲문의: (201)887-2323

20기 뉴욕실버미션스쿨 개강

20기 뉴욕실버미션스쿨(회장 김재열 목사, 이사장 한재홍 목사)이 3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개최된다. 장소는 뉴욕은혜교회(담임 이승재 목사). 등록비는 일인당 150달러, 부부 250달러다. 교육을 마친후 옵션으로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과테말라로 단기선교를 가게 된다. 실버미션은 현재 10개국에 33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문의: (718)279-2758



사랑의 대화학교 강사교육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장학금 수여 · 수준 높은 음악회...

퀸즈장로교회 설립 41주년 기념행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설립 41주년을 맞아 장학금 수여식과 음악회를 열었다.

동 교회는 지난 22일 주일 2부 예배를 중국어회중과 3부 예배를 영어회중과 함께 드림으로 다문화 다민족 선교의 비전을 보였다. 설립감사예배로 드린 4부 예배는 허경화 장로 기도에 이어 김성국 목사가 “교회가 평안하여”(행9:3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성국 목사는 “오늘 본문에 아름답고 정감스런 교회 모습이 있다”며 “살음을 추구하는 교회는 첫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 둘째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셋째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 한다”며 “퀸즈장로



퀸즈장로교회 설립 41주년기념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기념촬영 했다. 앞줄 가운데 김성국 목사부부

교회는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역

사하시는 예배와 교육을 지향하면서 희생성을 감수하는 주 경외함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앙적인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장학생 선발은 중고등학생 12명과 대학, 대학원생 7명 총 19명에게 수여됐다. 장학금은 85명 헌금자의 헌금으로 이뤄졌다.

장학위원회(위원장 윤자숙 권사) 부위원장 박정봉 집사는 모범

적 학교생활(25%), 커뮤니티 봉사활동(10%), 신앙생활(15%), 에세이(50%) 등을 기준으로 했다고 소개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신청학생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성국 목사는 앞으로 더 풍성한 장학금이 되길 바란다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생을 살라”고 격려했다.

담사에 나선 설성은 청년(영어부)은 “12년 이민과 퀸즈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연합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됐다.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다. 심겨진 씨앗으로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음악회는 퀸즈장로교회다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날 처음 선을 보인 블레시디스싱어스가 “있으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를 불렀으며, 첼로(윤지현), 플루트(윤소영), 바이올린(조은빛) 연주는 프로의 변모를 보여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피아노 반주는 임보라 윤수영이 맡았다.

또 소프라노 강혜영 집사의 찬양과 글로리아싱어스가 “깨어나라”, “우리함께 기도해”를 부른 뒤 김성국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연합회 단합과 친목 강조

뉴욕장로연합회 2015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가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 플러싱 금강산연회장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개최했다. 회장 정권식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장로연합회의 단합과 친목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하례만찬에 이어 푸짐한 경품잔치로 진행했다.

1부 예배는 김영호 장로(이사장) 사회로 대표기도에 이상호 집사(뉴욕교협이사장), 성경봉독 정덕상 장로(감사), 특별 찬양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오영환), 설교 이재덕 목사(뉴욕교협회장)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재덕 목사는 느헤미야 1장 1-11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헌금기도 김명신 장로(상임고문), 헌금특송 우화선 장로(감사), 축도 윤세웅 목사(KCBNI이사장) 순서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하례만찬은 이계훈 장로(행사준비위원장) 진행으로 시작돼 미국국가 및 애국가 제창, 회장인사, 임원진의 특별찬양, 한재홍 목사(교협증경회장)와 이종명 목사(교협부회장)의 축사후, 후러시제일교회와 황규복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이날 모은 헌금 전액은 노숙인사역기관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게 전달해 훈훈한 나눔의 분위기를 보였다.

이어 광고 및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만찬기도는 손성대 장로(상임부회장)가 맡았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하나님의 구원계획” 출판기념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출판기념 감사예배

라홍채 목사, “천국가는 지도라고 생각”

라홍채 김선옥 목사부부의 저서 “하나님의 구원계획”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23일 오전 11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1부 감사예배는 송병기 목사의 사회로 기도 전회수 목사, 성경봉독 이병홍 목사, 특주 김수경 목사, 설교 방지각 목사, 축도 박희소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계시록 4장 1-4절을 본문으로 바른 예배드리기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방 목사는 “우리가 죽어서도 해야 할 일이 예배”라며, “예배자들의 자세는 첫째, 예수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셋째, 장차 될 일을 예배를 통해 보여주신다. 목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 전해야 한다 넷째, 성령이 감동을 받아 성부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출판기념식은 이승재 목사 사회로 뉴욕장로성가단의 특송, 이형규 장로(품란출판사 대표)가 저자소개를 하고, 저자 인사에 이어 황동익 목사의 서평, 이병준 뉴저지교협회장 이재덕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뉴욕목사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선옥 목사와 함께 단위에 오른 저자 라홍채 목사는 “누구나 어렵고 복잡한 성경 66권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이 책이고 ‘천국가는 지도’라고 생각라고 썼다. 처음에는 내 지식과 생각으로 해설을 많이 썼으나 수정하면서 거의 성경 90% 이상을 성경 말씀만을 위주로 쓰게 됐다. 저자 신조차도 왜 이렇게 썼는지 미처 몰랐다”고 고백했다. 라 목사는 “한국 어판과 영어판, 중국어판에 이어 스페인어로 번역되고 있으며 이 책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쓰임받는 기쁨을 함께 보자”며 기도를 당부했다.[본지 1520호 16면 참조].

폐회기도는 황경일 목사가, 만찬기도는 이성현 목사가 맡았다.

이 감사예배는 뉴욕제자교회, 품란출판사, 페이스신학교동문회, 뉴욕위스턴 나웃신학대학이 공동 주최했다.

한편 라홍채 목사의 “하나님의 구원계획”(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3월 9일(월) 오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사랑의 대화학교’ 강사교육 종료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 주최 ‘사랑의 대화학교’ 강사교육이

지난 2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뉴저지 본원에서 열렸다. 총 7명이 수료했으며 “소통의 단절로 인해 힘들어 했던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주시길”이라고 주최 측은 기대했다.

한편 패밀리터치 뉴욕지부가 주최하는 분노조절세미나가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개최된다. 수강료는 없다. 또 ‘좋은 엄마들의 모임’이 3월 2일(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퀸즈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자녀들의 감정코치”라는 주제로 강사는 정정숙 박사.

▲연락처: (201)242-4422.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터

저자 라홍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론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론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판매)



뉴욕원로목사회 2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구정맛이 웃놀이...상품도 듬뿍

뉴욕원로목사회 월례회, 아름다운교회 초청

대뉴욕지구 한인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2월 월례모임이 18일 오전 11시 아름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회장 소의섭 목사 사회로 이성철 목사의 기도, 아름다운교회

교역자들의 찬양 후, 황인철 목사가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방지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아름다운교회 여전도회의 정성어린 오찬을 나눴으며, 이순덕 권사(찬양사역자)의 인도로 찬양을 한 후 오락 선풍이 웃놀이로 즐겁고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웃놀이 상품을 위해 아름다운교회, 한양마트 민승기 장로, 박정임 집사, 해피바임 이희상 장로, 금강산 식당, 국보 아로렛, 아씨한복 이불, 홍상설 목사 등이 협찬했다.

한편 뉴욕원로목사회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부르짖어 회개...하나님의 부흥 소망

제2회 남가주 미스바연합기도회, 강사 최요한 목사

제 2회 남가주 미스바연합기도회가 21일 바이올라대학교 채플실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동안 1부 예배, 2부 합심기도, 3부 그룹기도로 진행됐다.

강순영 목사(JAMA 대표)의 선포기도로 시작된 예배는 미스바연합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최요한 목사(남서우버린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최 목사는 '성령을 받으라'(요 20:19-23)는 제목으로 '성령강림은 요엘예언의 성취이며 모세 언약의 종결이고 신약교회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성령이 함께 하는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미스바연합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미스바연합기도회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KCCC & Firecrusade.

체험하고 힘 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진행된 2부 기도회는 KCCC 찬양팀들의 찬양으로 시작돼 세퍼

드신학대-세계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아주사 신학대-이스라엘을 위해, 탐봇 신학대-미국을 위해, 미주장로회 신학대-한국을 위해, 그레이스 미션신학대-남가주를 위해, 골든게이트 신학대-교회와 영

적 리더를 위해, 미스바철야기도팀-복한을 위해, JAMA-청년과 신학생을 위해의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한편 그룹기도를 통해 환우들과 헌신자들의 결단을 돕는 기도의 시간도 가졌다.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는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로 이 일을 위해 남가주 신학교 학생들과 단체들이 모였다.

기도회를 준비한 스태프들은 "지금의 자신과 이 땅의 가정들, 교회와 우리가 속한 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말하며 많은 크리스천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미스바 철야기도회는 오는 3월 20일 남가주생명교회(236 W. Cerritos Ave. Anaheim)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714)323-1194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영화 드롭박스 상영

한국의 유아아동을 구하려고 베이비박스 사역을 펼치는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의 이야기가 영화로 개봉된다. 영화 '드롭 박스'는 3월 3일(화)부터 3월 5일(목)까지 시애틀 동안 700여 개 극장에서 상영된다. 자세한 정보는 www.thedropboxfil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949) 838-6094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2015 춘계말씀부흥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14381 Magnolia Street, Westminster)는 2015 춘계말씀부흥회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오는 3월 5일(금)부터 8일(주)까지 갖는다. 강사는 정수일 목사(샌디에고 한빛교회 담임).

▲ 문의: (714)893-1652

매일성경 미주 독자 세미나

매일성경 미주서부 사역위원회 주최 매일성경 독자를 위한 '빌립보서' 세미나가 4일(수) 저녁 7시 LA 총현교회, 11일(수) 저녁 7시 로렐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미주지역 모든 목회자 및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강사는 황재기 목사(풀러신학 신학박사).

▲문의: (714)876-8832



사우스베이한인교회에서 열린 설맞이 친목회에서 한복을 입은 교육부 학생들

사우스베이한인교회 설맞이 친목회

사우스베이한인교회(담임 안대진 목사)는 설맞이 친목회를 지난 22일 오후1시에 가졌다. 이날 친목회는 교육부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어른들에게 새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어른공경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교인이 한복콘테스트와 율놀이 등 민속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노인들에게 영정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기사제공: 사우스베이한인교회)

'행복한 부부, 자녀사랑의 기술'

미주평안교회 가정세미나, 강사 임혜옥 사모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 교육부주관 가정세미나가 21일 오후 5시에 개최됐다. '행복한 부부, 자녀사랑의 기술'이란 주제로 시작된 세미나 강사는

어머니학교 주강사로 사역하고 있는 임혜옥 사모가 맡았다.

임 사모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창5:1-3)라는 질문을 던지며 가정의 정의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창조 원리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피력했다.

또한 "부모들의 사연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의 자라온 환경이 자아 형성으로 발현 한다"며, "부모와 자녀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강조, 말씀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고 자녀를 사랑 하는 기술을 배우자"고 강조했다. (이성자 기자)



임혜옥사모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꽃카페서 신앙과 음악 들려준다

복음연합감리교회 김성록 초청 찬양간증집회

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성 목사)는 18일 오후 7시 꽃포츠 테이 김성록 찬양사역자 초청 찬양간증집회를 가졌다.

미주지역 순회 첫 음악회를 지난 연말 애나하임 복음대학교에서 시작했던 김성록 집사가 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마지막 찬양집회를 갖게 된다.

'서울시립합창단출신 양봉업자'로도 기억되고 있는 김성록 집사는 서울대 음대에서 공부하기도 한 음악가로 서울시립합창단에 몸담고 있었으나 '자유롭고 싶어' 양봉업을 택하고 도시를 떠났다.

그러나 그에게 '복내장'과 허리스크는 그를 다시 도시로 불렀고 2011년 KBS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에 출연해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주며 매스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그의 직업인 양봉업과 한국의 꽃포츠(영국 브리튼즈 갓 탤런트 우승, 오페라 가수)라는 의미로 '꽃포츠'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

이후 그는 다시 음악인의 삶을 살게 됐고 현재 구미동 골안사 입주

에 '김성록의 꽃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 한쪽에 피아노와 무대를 마련하고 하우스콘서트를 열고 있는 그는 "기게 음악에 익숙한 도시인들에게 생음악을 들려주고 싶어 시작했다"고 말하며 카페를 찾는 이들에게 신앙과 음악을 아울러 전하고 있다.

지난 18일 저녁 미주지역 마지막 음악회로 복음연합감리교회 단 예전 김성록 집사는 '예수 앞에 나오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등 찬양곡과 가곡, 자신의 삶과 신앙을 들려주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성자 기자)

그림 속에서 치유의 길 찾는다

나성영락교회 YNOT, 미술심리치료 진행중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부설 YNOT과우테이션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아가페홀에서 미술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미술심리치료는 미술이란 도구(tool)를 이용해 어린이나 어른 모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의 표현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하고 치료의 길을 열어준다.

21일 오전 9시 세 번째 수업중인 키미조(멜라니)씨 암서포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씨는 "미술치료를 하라고 하면 그림을 못 그린다 하는데 저희는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림 속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 도자를 따라 색칠을 하거나 그리면서 그 그림 속에서 치유의 길을 찾아간다"고 설명하며, "미술치료 외에 10주 동안 진행되는 독서치유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멜라니 암서포트프로그램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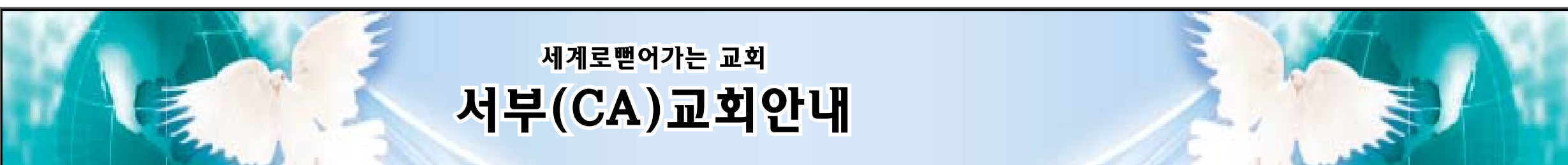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치료 중일 때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잘 버티다가 치료가 끝나면 급격히 마음이 다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더 많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

다"며, "암서포트 프로그램은 암환자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돕고 관리하여 치료를 편안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현재 암 환자를 받고 있는 분이나 암 치료가 끝난 직후의 환자, 또는 보호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6차례에 걸쳐 커 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낫 재단의 멜라니 암서포트 프로그램은 와이낫 보드멤버였던 키미조(멜라니)씨 암서포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씨는 "미술치료를 하라고 하면 그림을 못 그린다 하는데 저희는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림 속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 도자를 따라 색칠을 하거나 그리면서 그 그림 속에서 치유의 길을 찾아간다"고 설명하며, "미술치료 외에 10주 동안 진행되는 독서치유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외에도 와이낫재단에서는 부부/가족 심리치료,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 및 각종 사회복 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323)342-2808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아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8 63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8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 예배: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8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찬양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00 E.M.대학생: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Fuent) / www.nachimso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다미):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미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 교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scrdim.com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월-수 예배: 오후 7:30 영아찬양예배: 오후 11:20 영아예배: 오전 9:00, 11:20 2부: 오전 9:00, 11:0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gc.org	둥충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310)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dgkc.org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도예배: 오전 9:30 3부 영아예배: 오전 11:00 4부 영아예배: 오후 12:3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호 경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H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월-수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심리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생: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아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6:30(토) 주일학교: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아)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70-5100, (CH) 사역: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저녁 7:30 금 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일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272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성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gc.org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tv.com Tel: (310)630-4040(CH), Fax: (310)630-8400 2428 S. Vermont St.,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금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전 11: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7개 교단 이단대처 적극 공조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 자문 변호사제 운영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통합·고신·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 한국교회의 7개 주요 교단은 자문 변호사제 운영, 이단정보 교류 등을 통해 이단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7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이단대책위원장 모임 지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우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이단정보를 교류하고 공동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강의안, 동영상, 연구조사서 등 이단·사이비들의

정보 자료 사례 등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단·사이비 대처 때 일어나는 행정 및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조계 인사 등으로 자문 변호사제를 함께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각 교단 노회마다 이대위 설치, '이단경계주간' 공동 준수에도 합의했다.

박호근 예장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은 "최근 일부 연합기관이 교단의 동의도 없이 이단을 해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단 지정·해제는 신앙과 교단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 교단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에 보도된 '하나님의교회에 승소한 정장면 목사' 기사에서 보듯 이단들이 자급력을 앞세워 이단성을 지적하는 목회자와 교수, 기자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고 있다"면서 "무차별적인 이단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선 자문 변호사제를 공동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원 기성 이대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과천 은혜교회 신목주씨 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은 "최근 일부 연합기관이 교단의 동의도 없이 이단을 해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단 지정·해제는 신앙과 교단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 교단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박

동성애, 종교세, 이슬람, 이단... 집중논의 한교연 현안 대책마련 위한 교단장총무 간담회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23일 100개 교회를 선정해 이들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 동성애, 이단·사이비 대책 등 산적한 교계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이날 서울 중구 그랜드 엠베서더서울 호텔에서 '한국교회 현안 대책을 위한 교단장·총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와 대처할 현안으로 종교인 과세 입법 문제, 이슬람 대책, 동성애 입법 저지, 이단·사이비 공동대처,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운동 전개, 국민안전처의 상·가

정교회 철거 대책, 언론 및 종교편향 대책 등 7가지를 지목했다.

한교연은 종교인 과세 문제의 경우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종교계 간담회를 통해 나온 대로 법적 무 없이 '전입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월정 생활비에 대한 세금액'만큼을 스스로 납부하는 자발적 납세운동으로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운동은 성도들이 매일 12시 통일을 위해 1분간 기도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교회는 매월 1회 수요예배 때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상가교회, 반지하교회, 가정교회 등 많은 인원

이 운집하는 종교시설의 안전 대책이 미비할 경우 폐쇄하겠다는 국민안전처의 방침에 대해서도 한국교회 대처가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언론의 한국교회 폄해 행위와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이런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교단의 추천을 받아 100대 교회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100대 교회에 '한국교회 희망을 주는 100대 교회'라고 쓰인 동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100대 교회 선정 준비위원장은 예장대신 총회장 전광훈 목사가 맡기로 했다.

한교연은 이날 현황보고와 토론을 한 뒤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고 특별위원장에 서울장신대 이사장인 고시영 목사를 선출했

장은 "각 교단 이대 위원들이 효과적인 이단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교단과 교계가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준식 예장통합 이대위원장도 "예장통합은 65개 노회가 운영 중인 데 4개 노회에서 1명씩 이대위원을 파송하고 있다"면서 "전국 노회에서 파송된 이대위원과 신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대위원회가 이단성 시비가 있는 인사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단성이 있다고 총회에 보고만 하면 그대로 통과될 강력한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다음 달 예장통합 총회본부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 때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언론과 정부를 향해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돼야 한다"며 "한국교회와 힘을 모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주장하는 악법들이 입법화되면 이후엔 해결이 어려워진다'며 각 교단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한교연 전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를 대적하는 안티기독교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교회지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신도회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불교편향 예산 지원, 친불교 정책 쏟아놓고 "불교편향 아니다"=박 시장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2013년 3월 '도시공무원조례'를 개정해 봉은사의 오랜 숙원사업을 풀어줬다. 불교 언론에선 '40년간 규제에 묶여 있던 봉은사가 종교건물 신·증축이 가능한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템플스테이·불교박람회 지원, 전통사찰 관광자원 조성 등 친불교 정책도 쏟아냈다. 대표적 정책이 그해 8월 발표한 '조계사 부근 성역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2600억~3500억원을 투입해 조계사 부근 2만8577㎡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조계종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불사(佛事)'로 불린다. 극락전, 팔상전, 템플스테이 체험관을 새로 건립하고 불구정, 승복집, 불교서점, 관광버스터미널 등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거액의 헐레지원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불교 지원 예산도 급증했다. 올해 서울시의 불교 예산은 51억7450만원으로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2.6배 이상 늘었다. 개신교 예산은 1억5000만원, 가톨릭은 3억원이다.

서울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박 시장은 봉은사 미래위원장으로 2010년까지만 활동했다"면서 "미래위원장 시절 봉은사가 사회공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을 뿐 포교를 목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교인 박 시장에게 불교 편향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교회연론회 이억주 대변인은 "박 시장은 봉은사 미래위원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친불교 성향 공직자"라면서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역명 제정 원칙에 따라 코엑스로 역명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국주의를 끝내고 정의에 기초한 민족자결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사 11:6)'라고 묘사된 성경 속의 평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 이만희씨, 대전 지역교회에 편지

자신을 '약속한 때의 목자'로 밝혀 파문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 증거장막 총회장 이만희씨가 자신을 '재림의 계시를 성취할 목자'라고 밝힌 편지를 대전지역 교회에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씨는 신천지 예수교 대전교회(맛디아지파·서구 용문동) 이름으로 지난 11일자 편지에서 목회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목회자들이 어이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로 교회들을 위해 보냄을 받고 왔으며, 계시를 보고 들은 자는 자신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약속의 목자를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자신을 만나 확인하기 바라며, 만일 자신을 믿지도 받지도 아니하면 초림 때 예루살렘의 목자같이 될 것이다"라며 협박성의 내용을 썼다.

동구 가양동에서 목회하는 흥모 목사는 "신천지 이만희씨가 자신을 보혜사이며 구원자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받고 보니 신천지가 망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교회 비판 벌금형 '진용식 목사' 무죄

법원 "성도 보호 위한 적절한 종교비판의 자유"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를 비판했다가 약식재판에서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받은 진용식 안산상복교회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가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한정석 판사는 진 목사에 대해 "문제의 강연 등은 신도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진 목사는 2012년 3월부터 7개 교회에서 이단세미나를 진행하거나 하나님의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안상홍(1918-1985)씨와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하는 강길자(73)씨를 비판하고 하나님의교회의 이단성과 시한부종말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표 참조). 하나님의교회 측은 진 목사의 발언을 녹취한 뒤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진 목사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2013년 약식재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단예방 세미나 발언, 종교비판 자유에 해당=재판부는 "이단성 비판은 기독교 내지 기성교단의 공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신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비판의 자유의 한 발현 형태"라며 "종교비판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하므로 진씨 발언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진 목사의 발언에 대해 "175개국에 2500개 교회가 설립돼 200만 신도가 있는 하나님의교회 규모에 비춰볼 때, 안상홍의 사망 경위에 관한 사실은 공적인 것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 문제 제기는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하며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봉쇄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장씨가 지나가면 신도들이 코를 막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발언도 "어떤 종교나 교주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비판행위에 해당돼 폭넓게 보호할 필요

김학수(대전시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대전은혜교회 담임) 목사는 "성경을 보면 구원자는 예수님뿐인데, 신천지 이만희씨는 성경의 기초 지식도 없는 무지한 사람이다"라며 "이만희씨의 말은 믿을 것도 없고 현혹될 것도 없으며,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셔서 현혹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현대종교 객원기자·침례신학대학교) 전도사는 "신천지 집단에서 신천지를 홍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이다"라며 "이번 무면목은 신천지를 이슈화 시켜 이만희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는 홍보전략이다"라고 말했다.

또 "담임목사님들께서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공부를 참여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주의시켜야 하며, 새학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신천지의 동아리 모임에 속아서 활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신천지의 미혹에 조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 있다"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해도 일반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넓게 보호되는 종교비판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나님의교회 시한부종말론 언급했다"=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으로 2000년 발간한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연구'에는 하나님의교회가 1988년과 99년 시한부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고 안상홍의 저서와 안내 팸플릿은 88년 세상종말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였던 사람 8명"이 "하나님의교회가 99년 또는 2012년에 지구 종말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등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비 종교 때문에 여신도들의 가슴이 파탄됐다는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떠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하나님의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소명되지 않았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길자교' '씩을 놔' 표현도 모욕에 해당 안돼=재판부는 진 목사가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하나님의교회를 모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단의 통상적 의미가 교회, 특정교단의 권위에 의해 배척된 교리나 체제임을 뜻하는 것일 뿐임으로 그 자체로 그릇된 것이라는 의미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목사가 '씩을 놔' '길자교' '얹수' 등의 단어와 표현을 쓰며 모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교비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위법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진 목사가 장씨의 사진을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선교·전도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1984년에 촬영된 안씨의 유월절 대성회 집례사진을 진 목사가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원순 시장, '봉은사역' 확정·고시 지하철 9호선 역명 결정 개입 논란

서울 강남 봉은사의 주지 승려가 서울지하철 봉은사역명이 확정되기 10개월 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봉은사역 지정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봉은사역명을 확정·고시한 박 시장은 시민단체 대표 시절 '봉은사 미래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봉은사 주지, 서울시장 면담 후 '봉은사역' 확인=봉은사 주지인 원학 승려는 지난해 3월 18일 '불교저널'과 취입 100일 인터뷰를 갖고 "지난 2월 박원순 시장을 만나 봉은사역명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박 시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봉은사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원학 승려를 만난 것은 지난해 2월 6일이다. 강남구청의 주민선호도 조사(1월 1~15일)와 강남구청 지명위원회의 역명 논의(3월 21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역명 후보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학 승려가 봉은사역을 확신한 것으로 미뤄볼 때 역명 최고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의 긍정적 신호를 쫓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봉은사 주지가 면담 때 봉은사역을 건의했지만, 박 시장은 '강남구청 지명위에서 순위부여 후 제출하면 서울시지명위에서 역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어떤 민원인에게도 '성실히 검토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걸 '긍정적 반응'으로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 '도심포교' 위해 봉은사역 추진한 주지 찾아가=봉은사역과 관련한 박 시장의 의문스러운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지명위가 1차 회의를 열어 역명을 봉은사역으로 결정하고 이의제기를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봉은사에서 열린 원학 승

려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지난해 5월 봉은사를 방문한 것은 공적인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당시 봉은사는 2만명의 신도가 생명운동에 동참할 정도로 역명확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교통 요지인 서울지하철 9호선의 단독역명으로 채택되면 강남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부각돼 도심포교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학 승려도 봉은사 주지로 취임할 때 '갑동의 도심포교'를 주장하며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 제정'을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봉은사는 서울시지명위 1차 회의에서 봉은사역명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결정은 논란이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고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한 지명" 지역을 대표하는 다중이용 시설이라는 역명 제정 기준에서 벗어나 '역사성' '강남을 대표하는 전통사찰'이라는 불교계 논리대로 역명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역명의 최고 확정·고시권자인 서울시장의 봉은사를 방문한 것이다. 봉은사 측과 박 시장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박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고 역명 제정은 봉은사의 뜻대로 진행됐다.

서울시지명위는 같은 해 8월 2차 회의를 열어 "역명 병기(併記)라도 해 달라"는 코엑스의 이의제기를 '역명 병기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거부했다. 이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3차 회의를 열어 역명을 봉은사역으로 최종 확정했

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각성하자"고 다짐했다.

'3·1운동에 나타난 평화'에 대해 발표한 장로회신학대 임희국 교수는 "3·1운동은 일제의 학정(虐政)과 식민지배의 부당함을 온 세상에 알린 동시에 '세계개조를 주장했다'며 "세계개조란 당시 약육강식 사상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제

예장통합, 광복70주년기념세미나

'3·1운동과 기독교'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15년, 분단의 자리에서 생각

하는 3·1운동과 기독교'를 주제로 광복70주년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3·1운동에 깃든 평화의 정신을 기리고 민족의 치유와 화

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1운동이 추구한 평화는 수십년이 지나 1945년 8월 15일에 찾아왔는데, 이는 평화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선지자 이야이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권면하고 아하스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유다는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이를 통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

선교의 창 (26)

대학선교의 모델과 전략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대학선교! 이 일의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답이 잘 안 보인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문화와 환경에 맞는 구조를 택했다. 초대 교회는 카타콤 교회, 중세 때는 수도원, 근대에는 대학선교단체, 현대에는 선교한국이나 어버나선교대회 같은 대형집회를 통해 역사하였다. 그러면 21세기 대학문화에 맞는 새로운 사역적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문제는 단체보다 하나님이고, 상황보다는 원리가 우선이다. 어떠한 구조(Form)도 본질을 위한 수단이라는 전통의 구조를 절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무튼 이제껏 해왔던 대학선교에 대한 기독교회의 사역적 패러다임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하루가 다르게 세속화되어가는 학문세계와 대학문화를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전도와 양육이라는 단편적 사역 패러다임에서 대학을 지배하는 정신문화까지 아우르는 통전적 선교신학을 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시대정신과 유행에 민감한 대학청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제3의 선교적 구도가 시급하다.

대학선교! 이 일의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답이 잘 안 보인다. 그러나 시대마다 그 문화와 환경에 맞는 구조를 택했다. 초대 교회는 카타콤 교회, 중세 때는 수도원, 근대에는 대학선교단체, 현대에는 선교한국이나 어버나선교대회 같은 대형집회를 통해 역사하였다. 그러면 21세기 대학문화에 맞는 새로운 사역적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문제는 단체보다 하나님이고, 상황보다는 원리가 우선이다. 어떠한 구조(Form)도 본질을 위한 수단이라는 전통의 구조를 절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무튼 이제껏 해왔던 대학선교에 대한 기독교회의 사역적 패러다임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하루가 다르게 세속화되어가는 학문세계와 대학문화를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전도와 양육이라는 단편적 사역 패러다임에서 대학을 지배하는 정신문화까지 아우르는 통전적 선교신학을 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시대정신과 유행에 민감한 대학청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제3의 선교적 구도가 시급하다.

2. 전통적인 사역 패러다임

그간 기독교회는 젊은이들이 대학을 지배하는 세속문화에 휩쓸려

하고 주말에는 지역교회를 출석하여 예배하게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이종적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마음과 시간을 분산해야 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으로 인하여 교회의 목회자와 선교단체 간사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왜냐하면 한 청년을 두고 밀고 당기는 삼각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헌신되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이는 역으로 선교단체 간사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이다. 영양이 없이 왔다갔다하는 자를 깊이 신뢰하기가 힘들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독교회를 역시 번민 가운데 예

함께 꿈꾸게 된다.

이렇게 대학인을 위한 선교적 교회는 가능한 몸집을 가볍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성장이라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예배를 중시하되 전통교회의 틀을 벗어나 선교단체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1대1 공부, 소그룹 활동, 캠퍼스기도회, 공동체 생활훈련, 학생들이 중심이 된 전락회, 단기선교 등이다. 그리고 선교단체의 동질성이 있는 대학인 교회들과 함께 연합수양회를 개최한다.

맺는 말

산은 높을수록 계곡이 깊다. 대학 복음사역은 가치가 큰 만큼

대학선교는 바다의 격랑과 쟁투하는 격이다.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을 위해 적합한 구조는 Sodality적 Modality교회이다.

가는 것을 보면서도 정작 그들이 모여 있는 상아탑에 대해서는 선교적 부담이 없었다. 실령 관심이 있다 해도 이해가 부족하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대부분 중, 소형 교회는 대학생들이 가뭇에 콩나물 나듯 교회 안에서 보기가 쉽지 않았다. 혹, 몇 명씩 청년들이 있다 해도 교회차원에서 그들을 훈련할만한 노하우나 역력이 미흡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교회에서 캠퍼스사역에 눈을 뜬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그 성격은 주로 목회적 관점에서였다. 즉, 대학에 젊은 사역자를 배치하고 그곳의 청년들을 지역교회로 불러오는 방안이었다. 철저히 모이는 교회로서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

대학생들은 호기심도 많지만 계산이 빠르다. 호의에 못 이겨 한두 번 방문할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 그들은 냉정히 발길을 끊곤 한다. 아무튼 바쁜 대학생들을 지역교회로 데려오는 시도는 인위적인 요소가 강했으며 서로를 피곤케 했다. 이에 비해 대학 선교단체는 나름대로 헌신을 했다. 사역적 열매도 작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도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 지체들을 평시에 단체와 대학에서 활동하게

지를 분산해야만 했다.

3. 새로운 패러다임

대학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안은 무엇인가? 이제 이 사역을 위해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이벤트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Information이 아니라 Formation이다. 이 사역은 무게중심을 그들 눈높이에 두는 것이다. 그들을 지역교회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대학가로 교회가 찾아가는 방안이다. 이는 모이는 교회보다 흩드는 교회로서 방식이 있다. 이것은 교회와 대학선교 단체의 사역을 병합한 제3의 모델을 현시화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년 대학생 중심은 Sodality 성격의 Modality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때 오는 유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성이 생기게 된다. 둘째, 신앙인으로 주인의식이 고취된다. 셋째, 서로 친해지며 도움을 주고받는다. 넷째, 시간적인 부담이 덜어준다. 다섯째, 영성공동체의 일원화로 갈등의 요소를 없애게 된다. 여섯째, 대학과 이 세대를 보는 역사의식이 고양된다. 일곱째, 기독교 지성인으로서 미래를

려야 할 희생도 크다. 이 사역은 개척의 연속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사역의 물줄기가 끊긴다. 그러므로 여기 사역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단발적이며 근시안적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긴밀 차원에서 대학을 바라보아야 한다. 교회나 단체는 교세확장이라는 야심을 버리고 기독교 청년들이 캠퍼스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어야 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대학선교는 목회적 연장선상이나 학원선교단체의 사역적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 오늘의 대학문화에 맞는 선교적 구조는 무엇인가? 이미 언급한 대로 대학사역을 위한 제1과 제2의 패러다임을 병합한 제3의 방안이다. 바로 그들이 거하는 곳에 그들 중심의 Sodality적 Modality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는 구조가 단순해야 하고 철저히 선교적이어야 한다. 이 모델은 이미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임상하여 성공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대학사역에 관심 있는 기존의 단체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사역적 구조가 정착하도록 뒤에서 지도하며 돕는 것이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선교 편지

인도

Dear God's Fellow Worker, Shalom! Warmest greetings and many thanks!



A man/woman of God - 너 하나님의 사람이" 하시니 주님의 음성이 참으로 좋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와 기도제목! 13억 인도복음화의 모판과 전지기지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더욱 전진-더욱 기도!

주인도 한국선교부의 선교사역/IEC Trust Ministry! 1980년 예정총회의 파송을 받은 정윤진 목사부부(정선교사/사모 변미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한 팀/Term 선교사역을 잘 마치고, 인도로 온 가족이 오게 되었다. 봄베이/뭄바이와 첸나이 등 남인도지역을 순회하고 마침내 뱅갈로 지역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다.

1988년 인도복음주의교회/India Evangelical Church를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아시아 신학대학 및 대학원 Asia Evangelical College and Seminary of St. Paul High School을 시작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4살짜리 사나아아-양말은 물론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짧은 바지 하나만 입었는데 헤어져서 엉덩이가 다 보이는 - 한명을 붙잡고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줄곧 최선을 다하여 매일 간절히 기도드리고(선교사역 35년에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며, 매년 연말연시 3일 이상 금식기도를 드렸다. 금년에도 신학교를 중심으로 160여명이 간절히 기도드렸음). 13억 인도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진보와 일꾼양성(믿고 맡길만한 사람, Entrust to Reliable Men, 딤후2:2)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①주님께서 쓰실만한 일꾼 ②교회가 쓸만한 일꾼 ③사역이 쓸 수 있는 일꾼 양성에 날마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에 거행된 졸업식에서는 금년에 아시아 신학대학 및 대학원/AECS/Asia Evangelical College & Seminary 제 25회 졸업식과 학위수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신학사 학위수여자 24명, 목회학석사 학위수여자 42명, 박사학위수여자 3명입니다. 인도복음주의교회/ India Evangelical Church 제 23회 안수식에 13명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 동안 감사가 풍성한 가운데 안수식과 졸업식을 마치고, 전원이 저녁식사 만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유, 초, 중, 고등학교/St. Paul High School 졸업식에서는 고등학교146명이 졸업 하였고 초 중등학교 졸업생이 15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St. Paul 유치원 3년 과정을 수료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졸업생이 141명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졸업식과 학위수여식, 안수식 각각 진행되는 졸업식 등 모두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로 일관하였습니다. St. Paul PU College(학장 Dr. Rev. Prof. Abraham YoungUng Chung)는 제 3회 졸업식을 하였는데 129명이 졸업식을 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각 분야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St. Paul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학업성적과 각 분야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일꾼양성 특별히 인도 복음화 일꾼양성에 최대의 강조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노라고 하고 있습니다(골4:5, 엡5:16).

2월 16일 졸업식에는 900-1000여명이 참석하여 3시간 이상으로 말씀과 찬양과 감사로 일관하였고, 전원이 저녁식사 만찬을 같이하며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오직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도와 후원과 사랑으로 동역하여 주시는 모든 동역자분들(요삼8, 고전 3:9, 고후6:1)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풍성히 넘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마7, 요15)를 더욱 많이 맺어 가십시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인도한국선교부, 정윤진 변미화 선교사 이메일: aecsic@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907)344-6446, Fax: (907)344-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찬양찬양회: 오전 10시, (영어) 오전 11시 유년부: 오전 10:00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승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252)425-0288, Fax: (252)425-467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com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뮅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www.kpcd.org
앵커리지리얼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2095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리얼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EM)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경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영/일) 주일4부예배: 오후 2:00(말만) 새벽예배: 새벽 5:30(월-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후 2:00(말-토)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승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말-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영-일) 오전 5:30(토) 오전 6: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 펴기

북한선교

2015년 2월 통일 북한선교 기도소 식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하시길 기도드리며, 2015년 2월 주빌리 기도회와 통일 북한선교 기도소식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가?

북한 체제의 핵심은 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왔던 백두산 혈통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이론적 껍데기 안에 있는 핵심인 수령론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20대의 젊은 나이로 후계자가 되었을 때, 김일성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자신에게 입히고자 온갖 일을 다했던 이유였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북한을 다스리면서, 철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뒤를 이은 존재로 자신을 계속 우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후계자 옹립에 가장 가까워서 함께 했던 고모부 장성택을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여 과감히 제거하였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많건 적건, 지위가 높건 낮건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정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의 활동사진들을 보면, 김정은 앞에서 모두가 겸손히 두손을 모으고, 수첩을 가지고 열심히 노트

를 해서 지시사항을 철저히 따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쌍하게도 살기 위해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제국의 왕들과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악한 통치자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해서 현 시대의 국가 통치자들과 자본주의의 뒷 그늘에서 탐욕에 사로잡혀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광복 70주년이 된 2015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고통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한민족과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 어떤 해보다 간절히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제목(주빌리 기도제목)

1.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통일을 선물로 주옵시고, 통일한국이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의 영을 부으사 주빌리와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겔37:10)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2. 광복70년, 분단70년, 한국선교 130주년이 되는 2015년, 떠나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겔10:18)이 동토의 땅 북한과 황폐한 한국교회에 찬란한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겔 43:2) 한국교회가 살아나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고 통일한국이 열방을 향해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3. 19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이 되던 2007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부흥을 갈망하며 전국적으로 again1907 기도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분단 70년이 차



는 2015년이 되었습니다. 금홍을 베푸시는 주여, 구하오니 2015년이 통일의 원년이 되게 하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부흥,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한국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4. 통일시대의 주역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해 일어나고 복음적 통일을 위해 헌신하며 거룩한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분단70년을 맞아 영적대 부흥과 복음적 통일을 위해 청년들의 순수한 기도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

나 요원의 불길같이 한반도를 덮게 하시고, 영적 각성과 참된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한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찬미하게 임하옵소서.

5.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를 부르며 통곡(마23:37)하셨던 주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위기의 한국교회를 보며 한국교회야! 한국교회야!를 부르며 통곡하게 하시고 1938년 한국교회가 일제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범죄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조국교회를 바라보며 평양아! 평양아!를 외쳤던 주기철 목사처럼 죄악이 관영하는 민족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를 외치며 통곡하는 한국교회와 주빌리가 되게 하옵소서!

6.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마21:10)하셨던 주님, 2015 주빌리 코리아 기도큰모임을 통해 한국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성전을 정화(마21:13)하셨던 주님, 한국교회를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한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르신 성령의 관능을 한국교회에 부으사 열방의 복음의 제사장 나라(롬15:16)가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62:6, 7).

NIM대표 임현석 목사 드림
이메일: handsomelim@hanmail.net

IS, 시리아서 기독교인 최소 90명 납치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북동부의 왓시리아 기독교도 마을에서 최소 90명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24일 IS가 하사케주에서 쿠르드 병력으로부터 고대 소수 기독교 종파인 왓시리아 마을 2곳을 빼앗으면서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IS는 지난 15일 이집트 콤포트교인 21명을 참수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상을 공개한 바 있다.

IS, 터키내 테러 가능성 경고

터키 국가정보국(MIT)이 수니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터키 내 대사관 등에 테러할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터키 일간 후리예트가 19일 보도했다.

MIT는 지난 3일 경찰과 치안군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터키와 접경한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서 패퇴한 IS의 조직원들이 터키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IS 조직원 3천여 명이 터키 남부 하타이, 아다나와 수도 앙카라, 최대 도시 이스탄불 등지로 이동하려한다는 정보도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터키 내 은신처에 머물고 있으며 앙카라와 이스탄불에 있는 외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지에 테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 대상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IS 공습에 참여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등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MIT는 유럽 각국에서 테러할 목적으로 IS 조직원이 난민으로 위장해 터키로 잠입하고서 불가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터키로 넘어온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국적의 17-25세 청년 일부는 IS 조직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경고에 따라 코바니와 시리아 일부 접경지역을 군사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실제 지난 13일 그 지역 근처에서 폭탄테러로 경찰관 3명이 부상했다.

터키는 외국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이 IS 등 시리아와 이라크의 무장세력에 가담하는 주요 경로로 활용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럽 각국과 잠재적 테러리스트 명단 등의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MIT는 지난해까지 IS 등에 가담하려는 외국인 1천56명을 추방했으며, 7천833명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십자말 • Cross Word (70)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 푸는 열쇠>

1. 영원한 세월(눅1:48).
3. 지휘하는 명령(욥39:25).
6. 유대 북방에 있는 한 산(수15:10).
7. 평온한 자리에서 뜻밖의 분쟁이 일어남을 이르는 말(명).
9. 주로 문서를 맡아 다루는 업무(창39:22).
10. 아프리카에서 제일 긴 강. 애굽강이라고도 부른다(사19:7).
12. 높고 맑게 갠 푸른 하늘(창1:6).
14. 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조그만 화로(히9:4).
17. 바웃고 놀림(창32:25).
18. 안부. 형편(창29:13).
19. 지지분하고 더러운 물건(겔7:19)
22. 날짜(창1:14).
24. 몸에 지니는 자그마한 형겹(행19:12).
26. 한 가운데(창15:10).
27. 요단강 서편 계곡에 가까운 성읍(삿4:11).
29. 횡포하고 사나운 사람(사25:4).
30. 큰 물결(창15:8).
31. 요셉이 한때 종리를 지냈던 나라(명)

<세로 푸는 열쇠>


2. 영원토록 끝이 없음(롬16:27).

3. 예수님이 나귀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기뻐 뛰며 부르짖는 환희성(마21:9).
4. 등불에 기름을 뺏아 올려 불을 켜게 된 형겹으로 만든 물건(마 12:20).
5. 규율이나 관례를 깨뜨려 버림(창23:24).
7. 살롬. 하나님께서만 주심(눅24:36).
8. 향나무의 일종. 노란 꽃이 피며 뿌리에서 향액을 채취함(출 30:34).
11. 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민22:30).
13. 처음으로 만들어진 물건(욥40:19).
14. 음식을 먹지 않는 날(렘36:6).
15. 베냐민의 일곱째 아들(창46:21).
16. 오정 때(사37:6).
20. 다윗왕 시대의 아론의 자손으로 제9번차의 제사장이자(대상24:11).
21. 남자 무당(창7:11).
23. 스스로 중히 여기고 스스로 아끼(고사성어).
24. 객(히13:2).
25. 말린 포도(민6:3).
27.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 창조됨(창1:26).
28. 해산이 순조롭지 못하여 고생함(창35:17).

십자말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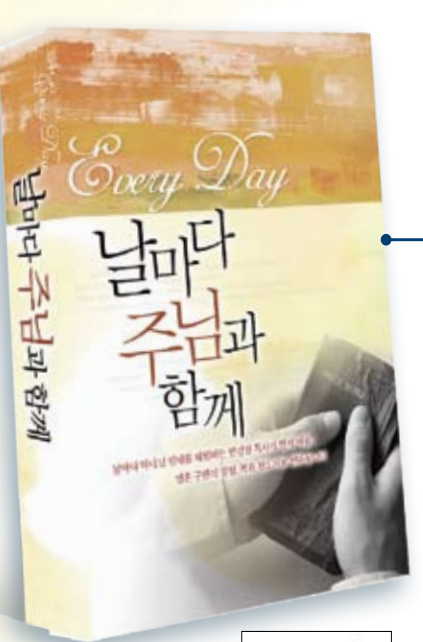
만	수	호	연	수	무
우	수	호	연	수	무
수	호	연	수	무	만
만	수	호	연	수	무
수	호	연	수	무	만
만	수	호	연	수	무
수	호	연	수	무	만
만	수	호	연	수	무
수	호	연	수	무	만
만	수	호	연	수	무
수	호	연	수	무	만

2015년 매일매일 주님 손 잡고 완주하자




완주자의 노래
감사, 감사 또 감사!
총신교회 원로목사 박종순 목사의 40년 목회 회고록
목회는, 단판승부보다는 완주 목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목회자들이 중도탈락 없이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길 바라는 마음에
후배 목회자들에게 솔직하게 목회의 부름으로부터 평소의 목회철학인
정도목회와 균형목회에 대해, 동역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을 담았다.
336면 / 14,000원 / 신국판 양장

■ 저자/박종순
동부이촌동의 총신교회 원로목사로서, 사단법인 한지대 이사장 겸 대표, 한중기독교교류협회 대표회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이사장, 숭실대학교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C채널 TV방송 회장을 맡고 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1년 52주 365일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도록 이끈다.
718면 / 25,000원 / 신국판 양장

■ 저자/민경설
광진교회의 담임목사로 대전신학대학교 명예총장,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미래목회연구원 원장, CTS 기독교TV와 국민일보, 극동방송 설교자, 한국정보교복지재단 이사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전도학교 교장, 안산이주인센터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www.qumran.co.kr 서울 중로구 이화장길 6 Tel. 02-747-1004 

인/터/뷰

All In One Guitars 김진수 대표

기타 판매와 수리, 기타교실 운영...뮤지션 네트워크 조성

“올인원 기타는 단순히 기타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을 통해 뮤지션들의 네트워크는 물론 즐겁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한인타운 웨스트와 5가에 기타전문점 ‘올인원 기타’(All In One Guitars, 533 S. Western Ave, #A)를 개업한 김진수 대표는 음악인들을 비롯 많은 사람들과의 만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동양선교회에서 찬양팀을 지도하며 섬기며 있으며, 현재 워싱턴대학교 찬양사역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31년간 기타연주자로 활동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기타전문점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음악적인 교류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건물 안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 정했죠.”

이곳에서 판매되는 기타는 어쿠스틱 기타, 일렉트릭 기타, 클래식 기타, 베이스 기타 등 각종 기타이며 신제품과 중고 제품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인종과 연령층이 다양하다. 한인타운에 위치하지

점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곳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관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패키지로 된 것을 구입하면 포장을 뜯어볼 수 없거든요. 즉 그 안에 어떤 상태의 기타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요.”

김 대표는 샵에서 판매되는 모든 기타는 고객의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해준다고 말했다. 기타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 스타일에 맞도록 셋업을 한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값싼 기타를 팔더라도 기타세팅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모습에 직원으로서 이곳에서 일하는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이곳에서는 기타 판매와 수리는 물론 기타교실까지 열고 있다. 허지에 자매는 “40대 여성분을 가르칠 때였어요. 레슨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힘든 것 같아서 찬양을 가르쳐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집에서 기타연주하면서 찬양하는데 많이 위

로되고 좋다고 하셨어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타를 보고만 있어도 좋아한다고 말하는 김진수 대표는 올인원기타를 통해 타운에 거주하는 뮤지션들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그리고 올인원기타를 통해 웨스트와 6



올인원 기타 김진수 대표(사진 가운데)가 직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타일에 맞게 셋업하는 맞춤형 서비스 작은 콘서트장으로 공연문화 일조 희망

만 한인보다 타인종이 더 많아 샵에 오는 한인의 비율은 20%정도. 한인을 대상으로 시작한 비즈니스지만 그중에는 헐리웃에서 활동하는 조연급 배우들도 간혹 만나게 된다고 전한다.

이곳에서 일하며 기타지도도 하고 있는 허지에 자매는 “샵 근처에 윌튼극장이 있고,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이오타 커피점이 가볼만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듯해요. 저희 샵이 지나가는 곳에 있다 보니 백인, 흑인, 필리핀 사람들은 물론 유럽 사람들까지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또한 저희 대표께서 워낙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런지 한인들보다 타민족 분들을 많이 찾아요”라고 설명했다.

올인원기타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기타를 소중히 다룬다는 것. 김 대표는 대형 기타매장인 기타센터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뿐더러 기타센터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구입하기 위해 기타센터를 이용합니다. 저도 그곳을 찾았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상태가 좋지 않은 악기를 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예요. 대형매장이고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타 소매

점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서 기타를 구입하는 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허지에 자매는 “대표님은 정말 기타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의 표현이 대중 기본적인 서비스를 넘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아무리 저렴한 기타를 판매할 때도, 또 기타를 수리할 때도 마치 자신의 것을 돌보듯이 하세요”라고 말했다.

허지에 자매는 김진수 대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이 되는 데는 그의 경영마인드가 한몫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중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즉, 제품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 제품을 구입할 고객에 비중을 두는 것을 들 수 있다.

“제가 다른 기타샵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물건만 잘 팔면 된다는 생각에서였는지, 손님들에게 버거울 정도로 부담되는 가격대의 제품을 팔라고 종용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팔면서도 마음이 개운치 못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김진수 대표님은 고객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비롯해 연주스타일에 맞는 기타를 소개시켜주세요. 그리고

가 거리가 음악의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이제는 이곳 뮤지션들 사이에 만형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뮤지션들을 비롯한 많은 뮤지션들과 교류가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그게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프랑스에 가면 맛집처럼 악기들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거리가 있다고 해요. 이곳 LA 한인타운에도 그런 거리가 생겼으면 합니다. 그저 판매만 할 것이 아니고 애프터서비스도 같이 하는 그런 가게들이 생겨난다면 그것으로도 관광지가 될 수 있거든요.”

김진수 대표는 올인원기타 샵이 앞으로는 2-30명 정도 모여서 할 수 있는 작은 콘서트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게내부가 나무로 되어 있어 기타연주소리가 매우 좋다는 것. 기타 판매와 수리 및 기타교실은 물론 공연문화를 심는데도 일조를 하고 싶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올인원기타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allinoneguitars.com/>, 이메일 jesusguitar77@hotmail.com 이며 연락처는 (213)500-3013이다.

(박준호 기자)

지속적인 성장위해 실수를 없애라!

Willowcreek.Org, 소그룹 사역의 7가지 실수 제시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다면 필수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된다. 따라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장애물 앞에서 어떤 실수가 소그룹 사역을 망치게 했는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윌로우크릭의 소그룹 사역 총책임자인 빌 도나휴와, 윌로우크릭커뮤니티 교회의 소그룹 사역 총책임자였으며 현재 매도브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러스 로빈슨은 바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준다(The Seven Deadly Sins of Small Group Ministry).

도나휴와 로빈슨은 소그룹 사역을 시작한, 혹은 오랫동안 해 온 교회가 흔히 범하게 되는 일곱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제시하면서, 각 실수마다 실제적인 예와 함께 일곱 가지 해결책을 달았다. 이 실수들은 미국 소그룹 사역의 건강한 모델인 윌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가 직접 겪고 효과적으로 해결한 문제들이며, 제시된 예들 역시 윌로우크릭교회나 윌로우크릭교회 멤버들의 실제이다.

소그룹 사역과 관련해 가장 먼저 말하는 실수가 바로 ‘불분명한 사역 목표’이다. 소그룹을 왜 하려고 하는지, 소그룹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포인트 리더십의 부재로, 소그룹 사역이 몇 명의 사역자에 이끌려서 가게 돼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제다. 그리고 리더십의 역할과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적거나 없으며, 상위 리더들이 리더십 개발의 본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리더십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지 않으면 소그룹 사역은 방향을 잃게 되고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 ① 불분명한 사역 목표
- ② 포인트 리더십의 부재
- ③ 열악한 코칭구조
- ④ 끊임없는 리더십 개발에 게으름
- ⑤ 소그룹이 갖는 닫힌 태도
- ⑥ 소그룹에 대한 편협한 정의
- ⑦ 새 가족 흡수과정에 무관심

두 번째로 말하는 실수가 바로 ‘포인트 리더십의 부재’이다. ‘포인트 리더’란 윌로우크릭교회와 정의한 교회 안에서 소그룹 사역을 수호하는 사람에 대한 용어로, 포인트 리더들은 교인들이 소그룹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포인트 리더십의 부재로, 소그룹 사역이 몇 명의 사역자에 이끌려서 가게 돼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 번째로 말하는 실수는 ‘소그룹이 갖는 닫힌 태도’다. 사실 소그룹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룹 안에서 비전을 품고, 그런 기회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그룹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소그룹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열정적으로 모두가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말하는 실수는 ‘열악한 코칭 구조’다. 코칭구조가 열악할 때 소그룹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증상은 소그룹 담당교역자가 탈진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돌봄의 적절한 범위를 무시했고, 코칭을 위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치가 케어해야 할 범위가 너무나 넓은 것도 문제가 된다. 또한 역할의 불분명으로 인해 소그룹 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섯 번째로 말하는 실수는 ‘소그룹에 대한 편협한 정의’다. 이는 소그룹 생활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근하게 만들며, 새 가족이 소그룹에 들어가는 환경을 고민하지 않게 한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중요한 특성들을 제한하게 되고, 소그룹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리더들이 사장되게 된다는 어려움도 있다.

네 번째로 말하는 실수는 ‘끊임없는 리더십 개발에 대한 게으름’이다. 소그룹 리더십 개발에 게으른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 먼저 지정된 목자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 내에서의 리더십 개발의 가능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

마지막 실수는 ‘새 가족 흡수과정에 무관심’이라는 것이다. 사실 집회나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소그룹을 교회 안에 잘 정착시키게 도와준다. 그런데 현재의 구조 속에서 흡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어서 그것이 잘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96주년 삼일절 기념 예배 및 이민 112주년 음악회

The 96th 3.1 Movement Commemorative Ceremony & The 112th Anniversary of the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 of America Music Concerts



설교 피종진 목사



백지영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윤국익 목사



베이스 장진영



소프라노 지경



헬로 에스더우



Korean American Young Artists



에버크린합창단



지휘 피아노 진정우 박사



클라리넷 백철



소프라노 황혜경



테너 진승철



필그림남성합창단



미주여성코랄



글로리아찬양단

March 1, Sunday, 2015, 6:30PM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윌셔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icket \$20
 문의 (323) 708-9191
 (213) 820-9414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President, Rev. Esther J. Baek, Ph.D.
 후원 및 광고 문의 Tel: (323) 708-9191 • (213) 820-9414
 보내실 주소: 3921 Wilshire Blvd. #408, L.A., CA 90010
 Pay to Order: SCKMA

후원
 LA한인회, 한국일보, 남가주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Solomon University,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교정보, 기독교방송국,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투데이, 한인동포재단, Prodee University, University of Los Angeles, LA Evergreen Lion's Club,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임마누엘선교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한미기독교건립회관, 미주여성코랄, 한인기독교청년회, 이화코랄, 캠퍼스, 코랄레움, 속명관테모스, LA 남성선교회합창단, KADNO, The Good Shephedr 선교회, 미주 3.1여성동지회, 필그림남성합창단, 글로리아찬양단, Korean American Young Artists